

연구보고서 2008-04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심상달·고건
권영준·이승은



KDI

발 간 사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Stiglitz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소외계층을 껴안지 못하는, 공동체성이 약한 경제는 사회신뢰의 결여로 인해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응력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자본주의’의 확산을 제안하고, 그 중심 주체인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의 사회적 기업 연구는 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명시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나눔형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원대상을 연결하여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고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눔형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에서 2003년도에 수행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의 후속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원은 2007년에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을 개최하여 공동체자본주의의 핵심 주체가 ‘사회적 기업’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에 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현재 본원은 『공동체자본주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9년에 Columbia Business School과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에는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국제공동컨퍼런스에 앞서 그간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공동체자본주의의 정의와 그 특성을 살펴본다. ‘공동체자본주의’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감싸고 공동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와 유사하다. 또한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근대자본주의의 태동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자본주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설립 및 운영될 때 그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재화서비스 제공형, 이윤 나눔형 등이 있다. 한편, 영리기업도 넓은 의미의 나눔형 사회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데, 미국의 Red Campaign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적 기업의 착한 목적과 운영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매달 사전적으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고 고객들에게 알리는 ‘사랑의 줄이기 서빙고점’의 44개월간 수익금 데이터는, 그 목적이 착할수록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착한 목적과 운영이 우수한 인재의 봉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 아이디어, 환경이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므로 우리나라도 경영대학에서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휴먼뱅크와 타임뱅크를 구축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와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발굴하는 민간법인과, 이러한 법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공헌기업도 설립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편, 정부의 현 사회적 기업정책은 사회적 기업의 실제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이 지원이 인증제도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만 편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 향상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벤처창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기울이며, 지원하는 데 있어 민간과 파트너십을 이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 주셨다. 원내 2명의 저자와

원의 2명의 저자 외에, 두 번의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의 의견도 본 보고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간보고서와 본 보고서의 중간회의에서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특히 본 보고서를 읽고 꼼꼼하게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검토자들도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원고정리의 달인인 이승은 연구원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장은중 초빙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및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이고 진지한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택

목 차

발간사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2장 공동체자본주의	13
제1절 공동체자본주의의 개념	13
1. 공동체자본주의의 정의 및 특성	13
2. 사회민주주의, 공동체자유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및 위코노미와의 비교	16
3.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신뢰	21
제2절 근대자본주의 정신과 공동체자본주의	23
1. 아담 스미스에 대한 조망	24
2. 공동체 정신과 근대자본주의의 태동	26
제3절 정감인	50
1. 윌버포스(Wilberforce, William)와 클래팸 공동체(Clapham Sect)	51
2. 유일한 박사	53
3. Dr. Muhamad Yunus와 그라민 뱅크(Grameen Bank)	55
4. 송월주 스님	58
제4절 사회적 기업	59
제3장 사회적 기업	64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64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	67

1. 국외	67
2. 국내	70
제3절 사회적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	76
1. 착한 목적의 수익 창출력	77
2. 우수 인재의 봉사 확보	84
제4절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애로요인	85
1.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	85
2. 국내 사회적 기업의 애로요인	87
제4장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92
제1절 사회적 기업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방안	92
1. 휴먼뱅크와 타임뱅크의 활용	92
2. 마이크로파이낸스	95
3. 사회적 기업가 양성	99
4. 아이디어 발굴	104
5. 사회적 기업의 협력체제 구축 지원	105
제2절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108
1. 가치와 역량과 지원의 조화	108
2. 사회적기업인증제의 개선	109
3. PPP	112
제5장 결론	116
제1절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116
제2절 제언	118
참고문헌	120

표 목 차

<표 2- 1> 근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발명들	42
<부표2-1> 주요 연대표	49
<표 3- 1> 사랑의 즐잇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5년)	78
<표 3- 2> 사랑의 즐잇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6년)	79
<표 3- 3> 사랑의 즐잇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7년)	80
<표 3- 4> 사랑의 즐잇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8년)	82
<표 3- 5> 사랑의 즐잇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전체)	83
<표 3- 6> 2005년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관련 동아리	88

그 림 목 차

[그림 3- 1] 사회적 기업 개념도	65
[그림 3- 2] 사회적 기업 유형별 인증 현황	87
[그림 3- 3]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단	88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Stiglitz가 말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소외계층을 껴안지 못하는 공동체성이 약한 경제는 사회신뢰의 결여로 보안과 감독 유지 등의 체제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응력도 약화된다. 물론 이러한 소외계층 감싸기와 공동체성 회복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NGO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정부주도만으로 이를 해결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감싸고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공동체자본주의’의 확산을 제안하고, 그 핵심 주체로서 ‘정감인(情感人)’과 ‘사회적 기업’을 제시한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여 나눔에 사용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국내의 사회적 기업 연구는 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명시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고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눔

형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눔형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원대상을 연결하여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나눔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설립 및 운영될 때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 아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의 정의와 그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의 핵심 주체인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나눔형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며,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제언을 제시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체자본주의

공동체자본주의는 ‘다 같이 더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경제체제’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정부와 NGO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창조적자본주의’와 유사하다.

한편, 이러한 공동체자본주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먼저 아담 스미스의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행동 동기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지의 여부를 중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애(慈愛)를 베풀었을 때, 자기자신에 대한 긍지와 보람으로 인해 자애심(自愛心)이 생기는 도덕감정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담 스미스는 자애심의 한 유형인 다른 사람의 인정 내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개인의 덕과 사회이익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정감인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타인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근대자본주의의 태동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중세 시대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첫째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와 법치주의의 확립(제도 및 구조적 요소)이었고, 둘째는 ‘돈벌이는 천한 것,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존 인식 전환(문화 및 동기 부여적 요소)이었다. ‘공동체 정신’은 이 두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동체 정신’은 대중을 깨움으로써 언론을 확립하였고, 이는 다시 평등사회와 민주주의로의 움직임 이끌어냄으로써 봉건주의와 절대왕정을 청산시키고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법치주의를 확립시켰다. 또한 ‘공동체 정신’은 근면한 경제활동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토록 하였으며,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바로 이 ‘공동체 정신’에 의해 제도 및 구조적 요소와 문화 및 동기 부여적 요소가 동시에 변화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공동체자본주의를 누가 수행할 것이며, 누가 할 때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해답으로 ‘정감인(情感人)’과 ‘사회적 기업’을 제시한다. 정감인은 ‘타인의 필요에 사랑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언급된 ‘도덕적 엘리트’와 일맥상통한다. 대표적인 정감인 들로는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유일한 박사, Dr. Muhamad Yunus, 송월주 스님 등이 있다.

공동체자본주의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나. 사회적 기업’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나. 사회적 기업

2000년대 초에 자활공동체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회적 기업은 빠른 속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

4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정된 후, 이 법에 의해 지금까지 154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인증을 대기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 민간에서는 사랑의 줄잇기와 같은 나눔형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하고 있고, 2005년에 시작된 ‘쏘시얼벤처대회(SVCK)’를 비롯한 사회적 기업 벤처 공모대회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생들의 사회적 기업 동아리들도 활발히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개념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나눔형 방식도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혼합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사회적 임투자기관 및 사회적 기업 벤처캐피털 등도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UN은 NGO와 NPO들도 효율적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NGO들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NGO와 구별되는 것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도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과 혁신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공공부문과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혁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과 수익 창출의 동시적 달성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나눔형 사회적 기업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전적으로 누구를 돕는지 명시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자리형이나 서비스형보다 자원봉사자들의 접근도 쉽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보다 잘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영리기업도 넓은 의미의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에 포

함될 수 있다. 미국의 Red Campaign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U2의 보컬 보노(BONO)는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고, 여기에 APPLE, CONVERSE, DELL, AMERICAN EXPRESS 등과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RED) 캠페인이 탄생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약간 변경하여 RED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AIDS 등의 질병 퇴치기금에 기부한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띠도록 새롭게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 기업의 형식으로 전환한 기존 영리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기존 기업들이 그동안 조성해 온 기업의 인지도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크고 빠른 사회의 호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

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휴먼뱅크와 타임뱅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휴먼뱅크는 자원봉사자 및 착한 전문가, 은퇴자 등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훈련시킨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봉사처에 연결하는 것이며, 타임뱅크는 봉사를 한 사람들의 봉사마일리지를 기록하여, 기준 시간 이상이 되면 자신이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봉사를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시스템은 사회적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해 소액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 기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사전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야 하며, 나눔형 사회적

1) 이 경우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익(일부 또는 전부)을 사용하는 목적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임의적으로, 또 형편이 되는대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도 대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및 MBA에 사회적 기업 관련 과목 및 과정을 개설하고,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이제 막 시작된 사회적 기업 벤처대회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기업 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 간 협력은 규모의 경제와 집단 지성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며, 공동 투자 유치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간 협력체제는 오픈 네트워크 형식을 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갖추며,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위해 먼저, 가치와 역량과 지원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반면,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육성하는 데에는 투자와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원영역이 과도하게 크고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지머니(easy money)’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으로써, 정부지원이 끊기는 2,3년 뒤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량을 키워내기가 힘들어진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적 기업 하나 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장이라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현 인증제는 새로운 다른 형태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PPP(Private-Public Partnership)를 통해 사회적 기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신용보증 및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지원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혹자는 ‘공동체자본주의가 가능한가?’, ‘사회적 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였듯이, 사람들은 이기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자본주의는 실현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착한 목적과 착한 운영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매달 사전적으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고 고객들에게 알리는 ‘사랑의 줄이기 서빙고점’의 44개월간 수익금 데이터는, 그 목적이 착할수록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²⁾ 월평균 수익금이 외부의 NGO들을 도울 때가 내부 기관을 도울 때보다 11% 높았고, 수혜자가 외국인일 경우가 내국인일 경우보다 46% 높았던 것이다. 즉, 착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이점으로 좋은 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일의 의미와 보람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인적자원’에 달려 있는 지식경제사회에서 우수한 인재의 봉사 확보에 도움을 준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기업의 성공 잠재력이 실제적인 성공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의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지원이 인증제도에 의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의 기업에 다소 편중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증된 기업에는 경영컨설팅, 우선판매, 조세감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현 사회적 기업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정의된 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념 규정은 한 분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2) 여기서 착한 정도의 기준은 나와 관계가 적은 사람들을 도울수록 더 착하다고 보았다.

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오히려 예비 사회적 기업들의 벤처창업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사업이 사회투자지원재단 등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제공에 있어 민간과 파트너십을 이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예전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듯이 정부주도로 서두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활발히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그 역량을 기울여야 하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과 아이디어와 환경이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경영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휴먼뱅크와 타임뱅크를 구축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민간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공헌기업도 생겨나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시장경제체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극화 해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oseph Stiglitz는 “경제성장은 단순히 GDP를 증가시키는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Sustainable)해야” 하며 또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inclusive)” 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빚으로 과소비하는 일 없이 잉여를 축적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랫목을 덮히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하향침투이론(trickle down economic theory)은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최근의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7년 전보다 형편이 나빠졌다.”³⁾

Stiglitz는 또한 “불균형의 해소와 경제성장 간에 상충이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첫째,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경제성장의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확실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개인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 획득을 위한 다양한 모험을 시도해 보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은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효율적⁴⁾이라고 할 수 있다.

3) Joseph Stiglitz, “Turn Left for Growth,” guardian.co.uk, 6 August 2008 참조.

4) *Ibid.*

뿐만 아니라, 성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감싸는(inclusive)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 결여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신뢰감이 구축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산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검거 및 처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⁵⁾

소외계층을 감싸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선진화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장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경제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역시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 중의 하나는 수입개방을 포함한 선진화 정책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정부의 협상과정의 실수를 빌미로 개방화로 피해를 보는 소수의 이익집단들이 주도하여 사태가 장기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및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소외계층 감싸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 중에서 그간 다소 소홀했던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성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NGO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주도로만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은 경제활동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세금 증대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력마저 떨어지고 있어 다른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체자본주의는 이러한 소외계층 감싸기 및 공동체성의 제고를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서 정부와 NGO들이 하는 일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와 비슷

5) Ibid.

하다. 그러나 공동체자본주의와 창조적 자본주의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근대자본주의 정신에서부터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개념인 것이다.⁶⁾

공동체자본주의의 중심 주체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할 줄 아는 ‘정감인(情感人)’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나눔에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UN 역시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주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Venture, Social Enterprise)을 채택한 바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여 나눔에 사용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국내의 사회적 기업 연구는 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명시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고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눔형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눔형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원대상을 연결하여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설립 및 운영될 때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 아래,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의 정의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였던 사회민주주의, 공동체자유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그리고 위코노미를 공동체자본주의와 비교한다. 이와 함께 ‘공동체 정신’이 자본주의 속에서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과정에 대해서도 논한다. 이어서 공동체자본주의의 핵심주체인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6) 고건, 「공동체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 정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및 *Time*, 31 July 2008 참조.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눔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또한 나눔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사랑의 줄잇기 서빙고점’의 운용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제4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현재 사회적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영능력 부족, 자금난, 자원봉사자 부족, 그리고 사업모델 빈곤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인력뱅크와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보관하는 타임뱅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위해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스템의 제고방안을 제안한다. 이 외에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 기업에 필수적인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회적 기업의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도 개선과 사회적 기업의 시범사업 운영 및 신용보증 제공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결론을 서술한다.

제2장 공동체자본주의⁷⁾

제1절 공동체자본주의의 개념

1. 공동체자본주의의 정의 및 특성

2007년 KDI가 주최한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를 ‘다 같이 더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경제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자본주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첫째, 공동체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시장만능주의에 가까운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나 정부만능주의에 가까운 신중상주의(新重商主義)를 모두 배격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공동체자본주의는 노동의 신성함과 직업이 소명(calling)이라는 청교도적 윤리를 받아들이며,⁸⁾ 동시에 직업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7) 권영준·심상달·정세열,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에서 발췌.

8) 여기서 말하는 청교도적 윤리란 막스 웨버(Marx Weber)의 저명한 저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에서 독특하게 해석한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 유럽 및 미국에서 직업을 천직이자 소명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교육 및 자선사업 확산, 사회보험제도의 확립, 노예 해방운동 등 사회개혁을 위해

것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⁹⁾

셋째, 공동체자본주의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천부 인권을 기본으로 한 경제정의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천명한다. 공동체자본주의는 이념적으로 공동체자유주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나,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¹⁰⁾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선(benevolence)의 차원이 아닌 그들에게 주어진 천부적(天賦的) 권리이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들도 공동체적 삶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공동체자본주의가 천명하는 천부인권사상은 생계를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질병을 치료받을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사상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UN의 세계인권헌장 제25조 1항과 기초를 같이한다.¹¹⁾ 물론 이러한 기초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인 및 정책 차원에서 지혜가 필요하며,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동체자본주의는 특히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정직(integrity)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에 주안점을 둔다.¹²⁾ 이는 개인, 기업 및 모든 조직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성(accountability)과 법치(rule of law)가 절대적으로 준수됨을 의미하고, 이것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이념이나 논리도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자본주의는 정직을 벗어나는 경제논리는 용납하

헌신하고자 한 청교도들의 의식 및 윤리를 지칭한다.

- 9) 월터스토프(Wolterstorff, Nicholas),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홍병룡 역, IVP, 2007 및 정세열, 『<서평> 월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2007(초고) 참조.
- 10) 공동체자유주의가 말하는 나눔은 자선적 기부의 성격을 가지지만, 공동체자본주의가 말하는 나눔은 약자들이 갖고 있는 천부인권적 권리를 개별 사회구성원과 사회가 반드시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책무라는 점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 11)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 12)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정의라야 공의(public justice)에 가깝다. 그 이유는 정의는 상대적 개념으로 호를 위협이 존재하는바, 개발론자의 정의와 환경론자의 정의가 다른 것이 한 예이다. 그러나 정직은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이므로 개발론자나 환경론자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직은 정의에 비해 더 절대적인 개념에 가깝다.

지 않으며, 시장의 정직 못지않게, 법을 만드는 과정(입법)과 집행하는 과정(행정), 사후적으로 판결하는 과정(사법)에서의 정직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섯째, 공동체자본주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한 수단들을 계발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 점에서 최근 빌 게이츠가 주창한 것과 같은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와도¹³⁾ 맥을 같이한다. 공동체자본주의는 시장경제원리(실물 및 자본시장의 경쟁원리와 기술혁신 등)를 잘 활용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창조적 나눔에 헌신하도록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잘 작동하도록 할 수 있고, 생명공학, 컴퓨터, 인터넷의 혁명적 발전을 빈곤과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지름길로 받아들인다. 한편, 창조적 시장원리를 도입한 사회적 기업(social venture/social business)의 확산에도 노력한다.

여섯째, 공동체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킬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사람은 정감인(情感人, 도덕적 엘리트, moral agent, moral elite)인데, 이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존재한다. 다만,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적을 뿐이다. 공동체자본주의는 이런 정감인들의 사회적 헌신(social commitment)을 묶어서 선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상호 연대(solidarity)하고자 한다.

일곱째, 공동체자본주의는 작지만 강한 정부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지향하지만,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건강하고 효율적인 시민사회단체의¹⁴⁾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제고,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탈정치화가¹⁵⁾ 선결과제라는 분

13) 본 절 2.의 ‘다. 공동체자본주의와 창조적 자본주의’ 참고.

14)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NPO), 제3섹터(Third Sector),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이나 기업(시장)부문과 구별되는 잔여적(殘餘的) 영역에 속하는 일체의 단체, 조직, 기구들을 포괄해서 제3섹터라고 부른다(조희연 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3 참조).

명한 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의 개혁에도 초점을 맞춘다.

2. 사회민주주의, 공동체자유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및 위코노미와의 비교

여기서는 공동체자본주의가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공동체자유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그리고 위코노미(WEconomy)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먼저,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를 비교하기로 한다. 사민주의는 19세기에 소유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질서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고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기층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급진적 이념으로 등장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는 사민주의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이념으로 축소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와 분배의 강화를 통해 좀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개량주의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런 점에서 중도적 위치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은 개인 및 기업이 자유로이 능력껏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사회복지(의료, 노후보장, 교육 등) 차원에서 돕기 위해 대규모 복지성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체제이다.

공동체자본주의도 개인 및 기업이 자유로이 능력껏 소득을 얻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세금을 걷는 방식 대신에 개인들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눔과 기부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민간주도형 나눔 운동

15) 시민사회단체의 탈정치화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하나가 바로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인 독립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에 기초를 둔다.

겉으로 일견 보기에는 전자와 후자가 모두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검증해 볼 때, 두 가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걷어 가나, 개인이 자발적 나눔으로 돈을 내나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차이가 많다. 왜냐하면, 사민주의 경제체제의 경우와 같이 고율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줄어들어 근로의욕이 감퇴되거나 우수한 인적자원들의 대규모 해외유출이 발생되고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소위 파이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일이다.

그러나 공동체자본주의의 경우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자본주의의 원리인 경쟁을 통한 과실획득(果實獲得)이라는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염두에 두는 정감인(예: 월버포스, 유일한, 유누스, 빌 게이츠 등)들이 자발적 사회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대하면서 보람과 기쁨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돕는 것이다.

즉, 공동체자본주의의 경우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외계층들을 자발적·적극적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계층들도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두 체제는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작동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사민주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감퇴로 인하여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후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므로 파이가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민주의는 정부가 세금 징수라는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중장기적으로 파이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이 있다. 반면, 공동체자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전자에 비해 훨씬 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이라는 비강제적인 방법의 한계로 인해 집행 가능성과 이행에 대한 담보가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눔과 기부 문화 확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성공한 정감인들의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동체자본주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같이 개인들은 물론 종교단체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기부문화 형성과 나눔에 있어서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동체자본주의와 공동체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공동체자본주의와 공동체자유주의는 그 이상 및 목표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공동체자본주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사회 및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공동체자유주의가 말하는 나눔은 자선적 기부의 성격을 갖지만, 공동체자본주의가 말하는 나눔은 가진 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기부의 차원을 넘어서 약자들이 가진 천부적 인권에 대한 당연한 책임으로 여긴다. 또한 이러한 나눔과 기부를 위한 개인 및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¹⁶⁾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다. 공동체자본주의와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¹⁷⁾

빌 게이츠(Bill Gates)가 주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는 시장의 힘이 적용되는 영역을 현재의 시장 소외계층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하자는 것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 방안으로 빌 게이츠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

16) 나눔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장 제2절의 ‘1. 아담스미스에 대한 조망’ 참조.

17) 본 내용은 빌 게이츠가 2007년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및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소외계층을 돌아볼 인센티브를 갖게 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가 제시한 방법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수요와 한계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득 하위 2/3 계층에 속하는 인구들의 구매력이 총 5조달러에 달한다고 한다.”¹⁸⁾ 이러한 시장에서 기업들이 사업기회를 잘 포착해 낸다면, 그들은 저소득계층에 큰 효용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역시 거대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층화가격정책(tiered pricing)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는 한 네덜란드 회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백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개도국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정부 역시 시장 인센티브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설정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미미한 이윤 획득 가능성 때문에 간과되고 있는 질병들(예: 말라리아, 결핵 등)의 치료제를 개발해 내는 제약회사에 대해, 그들의 다른 한 제품이 미 식품의약품국의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약회사에게는 수억달러의 금전적 보상과 맞먹는 혜택이다.

즉, 이와 같은 방법들은 기업들에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이윤 및 사회적 인정—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세계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인정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우수인력 확보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¹⁹⁾ 빌 게이츠는 각 기업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창조적 자본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았다.

결국 창조적 자본주의는 이윤 및 사회적 인정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의 힘이 소외계층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빈곤 및 불

18) *Time*, 31 July 2008.

19)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기업의 이윤 획득 가능성’ 부분에서 더 언급하고자 한다.

평등 해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시장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 정부와 NGO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창조적 자본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창조적 자본주의는 그 방법에 중점을 둔 반면, 공동체자본주의는 목적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라. 공동체자본주의와 위코노미(WEconomy)²⁰⁾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는 경제적 약자의 문제를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현 경제체제에는 ‘승자들의 파티’만 존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나 특정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끌어안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조선일보와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 같은 현상을 포착하여 ‘위코노미(WEconomy)²¹⁾’라 이름 붙이고, 그 개념을 “이기적이고 파편화된 개인(I·나)이 아니라 협력·참여·공생하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본주의”²²⁾라 명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위코노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코노미에서는 집단 지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예로 ‘이노센티브(InnoCentive)’라는 회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수많은 개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 및 정부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개인들의 집단 지성을 이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으로 공공 서비스 및 정책을 주문하는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org)’도 위코노미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집단 지성의 힘이 공공의 영역에서 역시 작동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20) 『조선일보』, 2007. 12. 31, 2008. 1. 1, 2008. 1. 7, 2008. 1. 10 참조.

21) WE(우리)와 Economy(경제)의 합성어.

22) 『조선일보』, 2008. 1. 1.

둘째, 위코노미는 자선단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을 증대 시킴으로써, 기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선을 추구한다. 구호기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방식은 철저히 월가(街) 스타일을 따르는 ‘어큐먼 펀드’와, ‘맥도날드식 경영’을 통하여 시술단가를 낮춤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에 수술을 제공하는 ‘아라빈드(Aravind) 안과 병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위코노미에서는 이윤 창출과 사회 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멕시코의 시멘트 업체 ‘세멕스(CEMEX)’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신들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축비용을 대출해 준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적 수요 예측을 통한 원료의 대량 구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이윤 획득으로 연결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소비자로 바라봄으로써 자선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코노미는 ‘집단 지성을 그 원동력으로 삼아, 현 자본주의를 협력하고 공생하고 참여하는 자본주의로 진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 또한 창조적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자본주의와 그 기본적인 맥락은 같이한다. 그러나 위코노미는 ‘집단 지성’에 초점을 맞추고 집단 지성이 가져오는 다양한 방면의 긍정적 변화들에 주목하는 반면, 공동체자본주의는 ‘착한 목적’에 좀 더 비중을 둠으로써 ‘나눔의 활성화’에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다.

3.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신뢰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신뢰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사회적 신뢰가 확립되어야만 공동체자본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고, 공동체자본주의가 활성화될 때 사회적 신뢰는 다시금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감싸는(inclusive)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를 높여준다. 그리고 높은 사회적 신뢰는 정부정책과 법이 제정되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신뢰가 낮을 경우에는 경제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도 어려워

질 수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그 혜택을 자신들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그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인용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한 구절을 상기시켰다. “국가를 빈곤과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안정적인 정부(stable government), 예측 가능한 법률(predictable laws), 그리고 공평한 조세(absence of unfair taxation), 이 세 가지만 지켜지면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사회적 신뢰가 전제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들은 매번 정부정책에 대해서 불신할 것이고 기회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갈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남미 국가들 중에서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해서 쿠데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부유층들이 타국으로 떠나는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여 왔다.

또 예측 가능한 법제화도 중요한데, 이 역시 입법과정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위한 편향된 시각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은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

공평한 조세제도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세를 위한 법률제정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집행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앞서서도 강조하였듯이 공동체자본주의는 그 달성방법을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장점 극대화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그 효율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아담 스미스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했던 고전적 자본주의의 배경에도 18세기 당시에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상업을 좌지우지하는 중상주의의 폐단을 배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중상주의는 보호무

역정책과 중금주의를 기초로 삼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시장을 완전 통제하는 규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랐으며 규제는 자연히 집권자나 관리들의 부패 및 이권 추구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공공사업의 운영 및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부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규제가 적을수록 좋다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만, 문제는 소위 자본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기득권층들이 정부의 힘을 빌려서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조치들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본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자연(然)하는 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Rajan and Zingales²³⁾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생산적 재화의 소유권 집중을 제한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이해집단들의 인센티브를 축소시켜야 한다. 둘째, 적극적 시장 개방을 통해 기득권의 보호하에 안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강도 높은 경쟁압력을 가해야 한다. 셋째,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대중들이 자유시장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도록 하며, 특히 기득권자들을 위해 전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근대자본주의 정신과 공동체자본주의

고대 그리스어에는 ‘경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Oikonomia와 ‘Chrematistike’가 있다. ‘Oikonomia’는 소속된 공동체를 자기 가정처럼 여기고 관리해 나가는 것을 뜻하며, ‘Chrematistike’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축재에만 관심을 갖는 일종의 재산관리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중 Economy의 헬라 어원이 된 것은 ‘Oikonomia’라고

23) Raghuram G. Rajan and Luigi Zingales, *Saving the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한다.²⁴⁾ 이렇게 ‘경제’라는 단어 속에 공동체성이 숨어 있었듯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 속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서 살펴볼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근대자본주의의 태동과정은 ‘공동체 정신’이 자본주의 속에서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1. 아담 스미스에 대한 조망²⁵⁾

공동체자본주의를 제안하면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를 다시 조망하는 이유는 경제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그의 사상이 오늘날의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특히 여러 면에서 공동체자본주의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스미스의 도덕감정에 관한 분석이 공동체자본주의의 나눔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담 스미스의 ‘나눔에 대한 도덕감정론’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서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의 동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지 여부를 중시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행동의 적절성은 자신 안에 있지만 내 편을 들지는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공평한 관전자(impartial spectator)가 공감(sympathy)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고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전자의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운에 따라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 변덕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관전자의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평가할 때 그 감정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4) 권영준, 『공동체자본주의와 관련된 개념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에서 발췌.

25) Alan Greenspan, “Adam Smith is as relevant today as he was more than two centuries ago,” Remarks by Chairman, FRB, 2004.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경박한 공상이 아니고 적절한 동기에서 관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자신이 봉사를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이 그들의 사랑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동감하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돌아보고, 공평한 관전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자신도 그 동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공평한 관전자의 동감에 따라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는 모든 면에서 기분이 좋게 여겨진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은 명랑함과 평온과 아늑함으로 가득찬다. 그는 모든 인류와 우정과 화합의 관계 속에 있고 그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가 자신을 그들의 가장 호의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자신감과 자애(慈愛, beneficence)의 만족감을 갖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시각에서 자애(慈愛, 또는 慈悲나 慈善, beneficence)와 자애심(自愛心, self-love)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스미스는 慈愛를 베풀었을 때 자기자신에 대한 긍지와 보람으로 인해 自愛心이 생기는 도덕감정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selfishness)과 달리 자애심(自愛心, self-love)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당연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대상이며, 더욱이 자애심이란 유형인 다른 사람의 인정 내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심(慈愛나 자선을 베풀었을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한 욕구)이 개인의 덕과 사회이익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⁶⁾

나. 아담 스미스의 이신론(理神論)적 시각과 공동체자본주의

스미스는 당시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연과학(특히, 뉴턴의 천체물리학)과 스토아학파의 영향으로 인격신론(人格神論, theism)에서 벗어나 자연신학(自然神學, natural theology) 또는 이신론(理神論, deism)을 배경으로 그의 도덕철학의 체계를 완성하고 나아가 경제이론을 전개하

26) 이근식, 『재정·금융정책과 자유주의 사상』, 조세연구원, 1994 참조.

였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인 가격기구도 바로 뉴턴 물리학의 만유인력과 같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이신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공동체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나눔에 대한 도덕철학적 분석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성이나 정의에 대한 개념은 스미스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동체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동선의 실현을 가능케 할 정도의 도덕감정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이신론적 시각보다는 더 비관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스미스 이후 19세기에는 이신론적인 시각에서 종교 중립적인 혹은 무신론적인 시각이 자리를 잡았고, 효용주의가 대두되어 시장경제 및 근대경제학의 지배 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전개된 자본주의는 결코 스미스가 전제한 인간의 도덕적 감성의 토양 속에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배계층과 이해집단의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얼룩진 역사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자본주의는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더 공동선에 반하는 행위를 효과적이면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정직과 신뢰 제고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상호 감시와 견제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둔다.

2. 공동체 정신과 근대자본주의의 태동²⁷⁾

앞 소절에서는 근대자본주의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으며, 자애심(自愛心)에서 비롯된 다른 사람의 인정 내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심(慈愛나 자선을 베풀었을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한 욕구)이 개인의 덕과 사회이익의 원천이라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근대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27) p.49의 <부표 2-1> 참조.

자본주의란 사적 개인이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가격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상공업 역시 멸시당하던 중세 시대의 비합리적 여건하에서는 자본주의의 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근대적인 사회제도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만 했고(제도 및 구조적(Institutional Structural) 요소),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부와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만 했던 것이다(문화 및 동기 부여적(Cultural Motivational) 요소). 그렇다면 근대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영국 등지에서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태동이 가능하도록 근대화되어 왔을까?

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 제도 및 구조적 (Institutional-Structural) 환경요소의 변화

사실 봉건적 절대왕정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찍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다. 1400년경에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한국의 홍경래난 등이 모두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념의 제시만으로는 근대화 노력이 성공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한 나라의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신문 사설 한 면 때문에 교체되는 것이 아님과 같은 이치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 움직임에 동참해야만 한다.

실제로 서구 사회가 과거 전제군주, 봉건적 체제에서 벗어나 근대사회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영국, 프랑스 등의 혁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김민제 등의 역사가들이 밝히고 있다. 이 혁명들은 비합리적이고 부패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 그 시발점은 ‘영국 혁명’으로서, 이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역사가들은 ‘영국

혁명'에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렇다면 왜 유럽 다른 지역보다 영국에서 이 시기에 가장 먼저 근대화로의 혁명이 시작되었을까? 당시 영국 내 상황은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시 영국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상공인과 지주 같은 신흥 세력들이 부상하고 있었다. 또한 신교와 구교는 종교적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왕과 귀족과 의회는 계속적으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국제정세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영국 혁명에 관한 역사적 해석은 아직도 급변하는 상황 중에 있다. 영국 혁명에 관한 해석은 현재 극도로 혼란된 상태에 있다.”²⁸⁾고 기술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은 역사가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다(영국 혁명은 일명 ‘영국 내전’이라고도 불린다).

“빅토리아 시대의 휘그 역사가들은 종교적인 원인이 영국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20세기 초반과 중반을 풍미하였던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가들은 종교가 역사를 움직인 주요 원동력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영국 내전은 쇠락해 가고 있던 귀족계급과, 성장하고 있던 부르조아계급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이론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르러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수정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p.37).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해석은 후퇴를 하였고, 이와 함께 종교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역사가들은 종교가 역사를 움직여온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 영국 혁명에 대한 해석은 마르크

28) 김민제, 『서양근대혁명사 3부작, 제1부—영국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2003, p. 211.

스주의적인 해석 이전에 각광을 받았던 휘그적인 견해로 회귀하였다. 영국혁명의 원인 중 종교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 이란 견해가 근자에 들어와서 영국 역사학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되었다(p.165). [요즈음에] 우리는 심지어 마르크시스트들조차도 퓨리티니 즘을 영국혁명의 이념으로 지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p.166). 영국 혁명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해가 다르게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와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 영국 혁명 당시 의원들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을 뿐 결론에 이르 지 못하고 있다(p.47).”²⁹⁾

이처럼 역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국 혁명이 왜 일어난 것인지—신홍 계급의 부상 때문인지, 의회 때문인지, 아니면 종교적 이유 때문인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정신이 영국의 근대화 와 자본주의를 이룩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점이다.

인쇄술은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축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서구 유럽의 근대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말 타임지 도 지난 천 년 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명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선정했다. 실제로, 구텐베르크 이후부터 인쇄물은 정 신적·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되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기까 지는 책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권력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이전 유럽에서 는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격언까지 있을 정도였다. 정보와 지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대중들은 그만큼 사회 권력에 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성경도 교회 성직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으 므로³⁰⁾ 교회는 큰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자, 이는 1400년경 막 태동되고 있던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쇄술의 도움으로 여러 학문이 보급되고 토론이

29) 김민제, 『서양근대혁명사 3부작, 제1부—영국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2003, p. 211.

30)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 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종교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기 시작한다. 인쇄술이 없이는 종교개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인쇄술을 통해 유럽 전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이 덕분에 루터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인쇄술에 의해 지식과 정보가 대량 배포되면서 대중은 이제 정보와 지식을 지배층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의 힘 역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미디어학자 맥루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인류는 인쇄물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사고하고, 토론하고, 요구하며 변혁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인쇄술이 모든 곳에서 실제로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혁명과 근대화의 동력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쇄술은 원래 7~8세기 중국과 한국 등에서 발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양의 인쇄술은 15세기경 유럽에 전해졌다.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을 개량하여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고, 이후 그의 인쇄술은 빠른 속도로 사방에 역수출되었다. 1464년에 로마로, 1539년에는 멕시코로, 1556년에는 인도로, 1584년에는 페루로, 1590년에는 일본으로, 1602년에는 필리핀으로, 1640년에는 이란으로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나라들에서 근대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서유럽, 특히 영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활발히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 때문이었다고 본다. 아무리 인쇄술로 유인물과 책을 보급하여도 대중들이 문자를 해독할 수 없다면 대량인쇄술은 그 사회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인쇄술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었다. 대중에게 책을 전해주기 이전에 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인쇄술이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없었다.

1)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대중교육

16~17세기에 걸쳐 유럽은 구교와 신교 간의 충돌에 휩싸이게 된다. 이후 유럽 대륙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무릎을 꿇게 되었으나, 영국에서

는 사정이 달랐다. 영국 왕 헨리 8세(재위 1509~1547)가 교황청이 자신의 이혼을 승인해 주지 않자, 구교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하였다. 또 영국은 전통적으로도 교황청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³¹⁾ 영국과 유럽 대륙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교황은 번번이 영국 대신 대륙국가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7세기에 영국은 개신교의 종주국이 되었고, 개신교를 자유로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에는 많은 수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Cubberley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 이후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작하였다.”고 적고 있다. 부자와 귀족들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무상으로 교육시키기 시작하였고,³²⁾ 남녀 모두 교육시켰으며, 도시뿐 아니라 벽촌까지도 골고루 교육을 시킨 것이다. 물론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처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열심이었던 데에는 모두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신과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당시 대중교육운동을 벌인 프로테스탄트들은 사랑, 즉 ‘공동체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즉, 모든 사람, 당시의 소외계층이었던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신을 만나 구원을 얻도록 해주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이 대중교육에 힘쓰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대중교육의 결과, 영국에서는 문맹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의 성인남자 중 1500년에는 10%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지만, 1600년에는 25% 이상이 읽고 쓸 수 있었으며, 1700년에는 약 50%가 이 범주에 들었다.

여자들도 1500년에 2%, 1600년에는 10%, 1700년에는 25%가 문자해독을 할 수 있었다.

31) 박지향,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2007, p.284.

32) 당시 많은 노동자나 가난한 가정들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관행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많은 서구 대학들은 교육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장학금을 줄 것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의 문자해독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아마도 성경을 읽고 직접 신과 교통한다는 신교문화가 잉글랜드인의 문자해독에 가장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³³⁾

“(영국의 문자해독률) 통계의 신뢰성은 영국교회의 결혼등록제도에 근거한다. (당시 영국에서는) 신랑신부가 두 사람 이상의 입회하에 교구의 등록소에 나타나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이 효력이 없었다.”³⁴⁾

즉, 당시 영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교회에 나와 신고를 해야 했는데, 신랑신부가 문자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자필로 기록/서명을 하였고 문맹이라면 교회에서 대필해 주었기 때문에, 영국의 문맹률 통계는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⁵⁾

한편, Cubberley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전개한 교육이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들을 강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각 개인이 직접 조사/연구하는 정신(spirit of investigation),
- 각 개인이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판단(liberty of conscience)
- 무엇이든지 새롭게 비판해 보고, 질문해 보고, 알아보고 하는 과학적 정신(critical, inquiring, questioning spirit of science)

즉, 이들의 교육은 과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으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을 하는 개인주의를 중시한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와 같은 교육철학 역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들은 성경을 개인이 직접 읽고, 개인이 직접 해석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다른 누군가가 개인의 종교적 판단에 개입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이뤄진 교육은, 성경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진리 탐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이러한

33) 박지향,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2007, p.299.

34) D. Vincent, *Literacy and Popular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3.

35) 일본도 전국의 불교사찰이 출생/결혼/사망신고 업무를 대행했었다. 많은 나라에서 주민관리업무는 전국적 조직을 가진 종교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방식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향후 각 방면에서 구시대적 관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체제를 새로운 근대적인 체제로 전환시키고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왜 대중교육으로 촉발되는 근대사회개혁 운동이 (문명의 발상지와 더 가까운) 동유럽이나 (경제·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남유럽이 아닌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영국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유럽 대륙에는 대체로 네 종류의 교육시스템이 있었다. 첫째가 지금까지 설명한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한 학교, 둘째가 르네상스 학교, 셋째가 중세 카톨릭 학교, 넷째가 국가에 의한 공교육시스템이었다.

① 르네상스 교육

르네상스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는 King의 책을 인용한다. King의 책은 다음과 같이 르네상스 학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르네상스 학교들은 16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부유한 상인의 아들, 귀족의 아들들만 훈련시켰다.”³⁶⁾

르네상스 학교들은 교육을 평등하게 시키지 않았다.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귀족의 자녀들만 교육시켰고, 남녀 모두 교육시키지 않고 아들들만 교육시켰다. 1400년에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은 18세기가 되기까지 (즉, 15세기에 인쇄술이 나오자마자 프로테스탄트들은 곧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내 ‘특권층’ ‘아들들만’ 교육시켰던 것이다.

이는 계몽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계몽주의자들도 ‘전 국민들’에게 실제로 교육은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국민 모두를 교육시킨다는 일은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는 수많은 Sunday School 자원봉사자들이 이 인력

36) M. L. King, *Western Civilization: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6, p.502.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교회의 헌금이 막대한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계몽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담당해 주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없었다. 계몽주의 사회나 르네상스 사회나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인색하였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프로테스탄트 지역들이 16세기부터 대중에게 교육을 시키는 동안, 르네상스나 계몽주의하의 유럽대륙 국민들은 그와 같은 교육 혜택을 일찍부터 받을 수 없었다. 르네상스 학교나 이성/계몽주의 학교는 엘리트 집안의 아들들만 교육시켰을 뿐, 일반 평민들이나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는 인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 국민에게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성’만으로는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들이 결여하고 있었던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이웃의 자녀들도 자신의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동체 정신’이었다.

② 중세 카톨릭 학교에 의한 교육

그렇다면 중세 카톨릭³⁷⁾ 학교 교육은 어떠했는가? Cubberley의 “History of Education”은 당시 유럽대륙에서 행해졌던 중세 카톨릭식 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카톨릭 나라들은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루터나 칼뱅처럼 느끼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 교회도 프로테스탄트처럼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한 기관으로서 보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프로테스탄트식 교육에서 배우게 되었고, 중세 카톨릭도 종교개혁 운동에 대항하기 위하여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을 시작하였고, 자체적인 교육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37) 본고에서는 ‘중세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카톨릭과 현대의 카톨릭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현대 카톨릭은 수백년 전 중세 카톨릭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종교들에서도 종종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 종교의 교리가 달라졌다고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그 종교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법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었지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의 교육은 아니었다. 선생님은 미리 세운 계획대로 강의만 하였고 학생들은 수강만 할 뿐이었다. 기억력 훈련은 잘 되었다.

하지만 ‘판단’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자발적인 ‘이해’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은 시키지 않았다.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중세 카톨릭식 교육은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교육이나 칼뱅주의 대학에서 육성시켜 주려 했던 개인능력 개발과 같은 교육은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은 하면 안 되는 적대적인 것으로 여겼고, 비민주적인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교육을 바라볼 때 나오는 시각이다.”

즉, 중세 카톨릭 학교에 의한 교육은 중세 카톨릭 교회와 봉건체제의 권위를 존중토록 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구시대적·수직적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이 역시 ‘공동체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구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국가에 의한 공교육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교실과 건물을 지어야 하고, 책상, 걸상, 칠판 등과 교과서가 필요하며, 교사가 필요하고,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려면 그 사회에서 국민교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였었다. 그 당시 정부나 지배계층은 국민교육에 대해 적극적이 아니었다. 그 당시 정부는 근대국가들처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었고(즉, 일반시민들도 참정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아니었고) 소수 엘리트들이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던 사회였다. 즉, “엘리트들 위한,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만의 정부”였었다. 일반국민들에게로 교육을 확대시킬 경우, 그것이 기존 체제에 미칠 영향, 기득권 세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엘리트들은 오히려 국민교육을 반대했었다. 영국의 교육학자 Vincent는 프

로테스탄트들이 영국에서 국민교육을 시작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로 가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개신교가 가장 먼저 교육을 시작하였다.”

영국 정부도 “국가가 국민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요청을 매우 오랫동안 묵살했었다고 밝히고 있다(Cubberley[1920]).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 John Knox는 제네바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낸 후(1560) 칼뱅주의자들이 제시한 종교국가에 깊은 영향을 받고, 칼뱅주의에 입각한 교육과 종교적 개념들을 스코틀랜드에 소개하였다. 그러나 Knox의 계획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의 공교육시스템은 19세기까지 미루어지게 된다. 대신 개신교 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의 교육을 관할하기 시작하였다.”(Cubberley[1920])

미국 대학의 역사 교과서도 유럽에서의 공교육 기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교육들은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었다.”³⁸⁾

결국 대중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부와 지배계층의 ‘공동체 정신’ 결여에 따라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이는 이미 근대화로의 개혁 틀이 잡혀가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결론적으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기간에 유럽 국민들은 대체로 세 가지 부류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르네상스/계몽주의 학교의 교육, 둘째 중세 카톨릭 교회에 의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

38) M. L. King, *Western Civilization: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6, p.729.

으로 프로테스탄트에 의한 교육이 그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계몽주의 학교의 교육은 교육대상을 귀족과 부유층에 한정지었다는 한계 때문에,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에 의한 교육은 주입식, 일방적, 비민주적 교육의 한계 때문에 합리적인 근대사회 구축을 주도해 나갈 시민세력을 육성하는 데에 미흡하였다. 반면에 16세기 인쇄술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프로테스탄트식 교육은 전 국민을 교육대상으로 삼음과 동시에 개인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을 중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시키고 이들 사회가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의 교육은 그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영국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부터 촉발된 근대사회개혁운동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영국에 개신교가 상륙하기 이전에 유럽대륙에서 먼저 행해졌던 프로테스탄트 교육에 대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민교육운동은 영국에서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일도 아니었다. 미국, 스웨덴 등 프로테스탄티즘이 들어간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국민교육이 일찍 시작되었다. 국민교육운동이 가장 일찍 시작된 나라들은 루터가 나온 독일, 그리고 칼뱅이 나온 프랑스 등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³⁹⁾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위그노들의 이러한 교육운동은 후일 영국 등 주변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국민교육 움직임은 잇달아 유럽대륙에서 발생한 프로테스탄트 박해 때문에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독일에서는 1618년에 30년전쟁이 발발하여 프로테스탄트 교육이 크게 위축되었다. 프랑스에서도 1572년 성 바돌로뮤 축일(St. Bartholomew's Day)의 위그노 대학살, 그리고 1685년 루이 14세의 개신교 금지령 등 대대적인 개신교 박해가 일어나 많은 개신교도들이 외국

39) 유럽대륙에서는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도들을 ‘위그노(Huguenot)’라고 불렀으며, 영국에서는 개신교도들을 ‘퓨리탄(Purita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본고에서는 이들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으로 탈출하게 됨으로써, 프랑스 영토에서의 위그노식 교육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들은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북구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을 떠났고, 이렇게 이주해 온 프로테스탄트들의 영향으로 영국, 미국에서 국민교육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영국에서는 당시 이곳에 많이 정착하고 있던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공동체 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이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발현시킨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던 간에) 남녀, 귀천, 지역의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교육대상이 되었고, 그 내용도 개인 스스로의 양심적 판단을 적극 장려하고 매사를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해 보며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교육이 영국 사회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2) 대중교육에 따른 제도 및 구조적(Institutional-Structural) 환경요소의 변화

① 언 론

문자를 해독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의 여러 분야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언론이었다. 대중이 글을 읽게 되자 신문이 흑자를 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Oracle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언론의 역사’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다른 대륙에서 신문은 매우 희귀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글 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또 역사학자 김민제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620년에 “나는 인쇄업자이며, 뉴스 인쇄업자이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뉴스를 인쇄하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뉴스인쇄업이 성행하였다. 정기간행물도 9,000종이나 나오기 시작하였다. 인쇄물의 파급효과는 과거 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

다. 영국혁명 당시 여론을 주도했던 매체 중의 하나는 인쇄물이었다. 이념 관계의 글을 실은 인쇄물들이 전국적으로 유포되었고, 혁명 사상은 장기간에 걸쳐 인쇄물 매체를 통하여 형성되었다.”⁴⁰⁾

앞서 언급했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맹퇴치운동이 전개됨으로써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자, 영국에서는 신문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조성된 것이다. 위키피디아(Wikipedia)의 ‘History of Journalism’을 보면, 최초의 언론은 독일에서 나왔지만 이 신문은 독자가 적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Daily News’가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1665년에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신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1702년에는 ‘Daily News’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신문을 발행할 때, 매 발행마다 그 신문을 발행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언론관계의 법령들도 최초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국민들에 대한 열린 교육이 뒤쳐져 있던 유럽대륙에서는 언론 정착이 이보다 느렸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19세기 중반 가서도 국가가 언론을 검열하는 체제였다고 역사책은 기술하고 있다.⁴¹⁾ 교육받은 사람이 적고, 대부분의 권력이 소수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였으므로 언론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유럽대륙에서는 그들이 표방하던 ‘이성/계몽주의’라는 시대정신에 걸맞지 않게 언론이 자라지 못하고 있었고, 언론탄압이 지속되었다.

② 신분사회

대중이 교육을 받고 또 신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공급받게 되자, 이들 사이에 개혁의식이 싹트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시에 시민들은 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김민제는 영국 사회에서 일기 시작한 남녀평등운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40) 김민제, 『서양근대혁명사 3부작, 제1부—영국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2003, p.136, 137, 314.

41) M. L. King, *Western Civilization: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6, p.677.

“여성사의 입장에서 영국 혁명은 혁명적이었다. (영국 혁명기간 동안에) 여성의 자의식은 크게 향상하였다. 여성들이 토론을 하고 투표하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여성이 신의 모습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확인하며 … (영국) 혁명을 통하여 여성의 자의식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⁴²⁾

영국 혁명 이후 여성의 지위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향상되었고, 드디어 20세기에 들어서는 영국, 미국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부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남녀평등사회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William Wilberforce 등이 일으킨 끈질긴 노예제도 폐지운동은 1833년 노예무역 폐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영국 전역에서 80만명의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③ 민주주의

이처럼 대중이 평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자, 민주주의 운동은 점차 힘을 받게 되었다.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는 1827, 1832, 1884, 1912, 1918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법들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상당한 재산가들만 행사하던 투표권이, 점차 평민과 가난한 자들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갔다. 또한 도시민만 투표할 수 있던 제도도 전국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 외에도 여성과 다른 인종도 투표할 수 있게 되고 비밀투표도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벤치마킹하는 민주제도가 프로테스탄트에 의한 대중교육이 활발히 실시된 국가들에서 완성되었다.

흔히 민주주의는 그리스가 기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었다. 그리스에서는 ‘시민’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었는데, 당시 그리스에서 시민은 불과 몇 안 되는 극소수의 특권계층이었다. 즉, ‘그리스 민주주의’와 같은 체제는 씨족사회나 부족사회 등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통치방식이었던 것

42) 김민제, 『서양근대혁명사 3부작, 제1부—영국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2003, p.1173.

이다.

또 민주주의가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대학 역사교과서는 계몽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루소는 1762년 사회계약론을 발표하고 … 국가는 전제군주에 의해 움직여져서는 안 되며, 시민들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전제군주를 끌어내렸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론가들은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지도, 추천하지도 않았다.”⁴³⁾

르네상스 발원지에 가까웠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나, 계몽주의 나라였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했다. 이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함양시키는 국민교육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근대적인 의식을 소유한 국민들이 거의 형성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카톨릭 교회가 뒤늦게 교육을 시작하였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교육이념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과거 지향적 수직적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이었다. 따라서 영국이 의회민주주의로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미국도 1776년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제정하며 민주주의로 나아가던 바로 그 시기에, 프랑스는 1804년 (민주주의보다는) 나폴레옹 독재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④ 과학기술

대중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자, 그 나라들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King(2006)은 다음의 표와 같이 근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발명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더러 발명이 나왔지만, 그나마 프랑스에서의 상공업 활동은 대부분 위그노들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과 기술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과학은 그 이론이 실험기기에 의해 검증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험기기를 만드는 일 자체는 기술이지만(예를 들면, 고성능 현미경을

43) M. L. King, *Western Civilization: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6, pp.499~500.

〈표 2-1〉 근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발명들

국 가	연 도	발 명 품	발 명 자
영 국	1712	증기 양수기	Thomas Newcomen
영 국	1733	플라잉 셔틀	John King
영 국	1764	다축 방적기	James Hargreave
영 국	1769	증기기관	James Watt
프랑스	1770	증기카드	
영 국	1779	물	Samuel Crompton
프랑스	1783	증기선(steam boat)	
영 국	1785	역직기	Edmund Cartwright
영 국	1789	공장(Manchester)	Robert Owen
영 국	1812	증기선(steam ship)	Henry Bell
영 국	1821	최초의 철도	
영 국	1829	로 콧	George Stephenson
영 국	1850	전국 철도 완성	
영 국	1851	세계박람회	
영 국	1856	전 로	Henry Bessemer
미 국	1793	조면기	Eli Whitney
미 국	1838	증기선(steam ship) 대서양 취항	
미 국	1866	대서양 통신 케이블	
미 국	1869	대륙횡단철도	
미 국	1876	전 화	Graham Bell
미 국	1879	전 구	Thomas Edison

자료: King(2006), p.610.

만드는 등), 과학의 뒷받침이 없이는 더 이상 고급 실험기기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과학과 기술이 서로 동반자로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은 서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과학역사가들은 밝혀주고 있다.⁴⁴⁾

Max Weber는 “오직 서구에서만 우리가 오늘날 타당한 것으로 인정

44) J. Henry,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Origins of Modern Science*, 3rd Edition, Palgrave Macmillan, 2008.

하고 있는 발전단계에 오른 과학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 바빌로니아, 이집트, 인도 등에서도 화약, 나침반, 천문학 등과 같은 지식과 관찰과 단편적인 발명들이 존재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수학적 기초, 합리적인 증명, 현대과학적 실험체제 등을 결여하고 있었다. 또한 17세기 영국은 영국만의 특유한 (동 시대 유럽대륙 다른 곳의 논문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실험방식(experimental method)을 개척하였다고 Henry⁴⁵⁾는 보고하고 있다.⁴⁶⁾ 이는 당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회개혁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유럽대륙이 구시대적인 수직적 사회, 농경사회를 고수하는 동안, 영국은 민주사회, 산업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다른 나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독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사회로 변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수많은 사회적·정치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쟁들을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변혁도상에 있던 영국이라는 나라는 중대한 위기에 빠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영국은 ‘Authority of Legal Procedure’를 만들어냈다. 즉, 각종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위한 논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실(fact)과 증거(evidence)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수궁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왕실학회 회원 같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출된 자료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결론을 알려주는 자료여야 했고, 그것이 실험결과라면

45) Henry는 ‘Historiography of Science’ 학자이다. 이들은 과거 과학자들의 논문, 편지, 회의록, 메모, 일기장 등과 같은 다양한 1차 서지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조사함으로써 자연과학의 역사를 탐구해 나가는 사회과학자들이다. ‘자연과학’의 역사를 탐구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풍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Historians have always preferred to stick to historical research, rather than to debate what a previous historians have said.”(Henry[2008], p.8). 즉, Henry와 같은 과학사 학자들은 과학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논쟁을 위한 주장은 철저히 배제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는 과학적 주장만을 수용하는 엄격한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46) J. Henry,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Origins of Modern Science*, 3rd Edition, Palgrave Macmillan, 2008, p.103.

그 실험은 반복이 가능해야 하고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내는 실험이어야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표를 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모두가 수긍하게 되면 그 쟁점은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Authority of Legal Procedure’의 기본개념이었다. “영국 과학자들은 당시 영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 사용되던 동일한 절차를 자연과학에도 적용하여, 영국만의 특유한 (당시 유럽대륙 다른 곳의 논문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실험방식(Experimental method)을 개척하였고, 바로 이 방법이 현재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실험방식(scientific experimental method)의 원형으로 정착한 것이다.”라고 과학사 전공학자 Henry는 주장했다.

지금까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 인쇄술로부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중의 대두, 새로운 시민계급의 대두를 촉발시켰고, 이러한 대중들에 의해 일련의 중요한 움직임들이 일어났음을 소개하였다. 즉, 대중교육은 언론 정착 및 민주주의로의 움직임을 불러왔고, 이는 다시 봉건주의와 절대왕정을 청산시킴으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치주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 및 구조적 요소의 변화는 영국이 근대자본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다.

나. 문화 및 동기 부여적(Cultural-Motivational) 요소의 변화와 근대자본주의의 탄생

근대자본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 장에서 기술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주체들의 부와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만 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과학자 Max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바로 근대자본주의 정신을 가지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준 장본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Max Weber는 그의 저서⁴⁷⁾에서 근대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자본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47)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88.

“통계에 의하면 한 가지 현상이 아주 자주 눈에 띈다. 그것은 카톨릭 계 신문이나, 문헌이나, 카톨릭 회의에서조차 아주 자주 논의되는 현상이다. 즉, 자본과 경영과 고급노동자들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갈수록 분명하게 ... 거의 모든 통계에서 이것이 나타남을 본다. 즉, 근대적 상공업에서 자본과 경영과 고급노동자들은 프로테스탄트에서 현저히 높다.”

즉, 이미 100여 년 전에 근대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사회 속에서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었음이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가 왜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 이처럼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대략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1)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게 되었다.
- (2) 천국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프로테스탄트들은 천국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 책임의식을 통감하게 되었다.
- (3)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의 모든 것(시간, 돈, 재능 등)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칭지기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 (4) 이제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곳’, 즉 소명(calling)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모든 직업이 평등해진 것이다.
- (5)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했다.
- (6) 그러나 열심히 노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들이 직장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결정이 되어야만 하게 되었다.
- (7) 이는 곧 모든 분야에서 합리(rationalism)를 추구하는 문화가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 (8) 프로테스탄트 경영인들은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법적으로 분리하였다

- (9) 프로테스탄트 경영인들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공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시작하였다. 투명한 경영은 사회적 신뢰를 쌓았고, 이는 곧 많은 고급 노동인력과 자본이 모이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 (10) 프로테스탄트 기업인들은 이윤이 생겨도 사치하는 데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재투자하여 프로테스탄트 기업에서는 자본이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 (11) 프로테스탄트 기업인들은 이익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

이상이 Max Weber가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보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문화 및 동기 부여적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근대자본주의를 탄생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근면한 경제활동과 사회 환원

과거 사회에서는 충분한 이윤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벌이면 그러한 끊임없는 사업의욕 자체를 탐욕적인 것으로 여기고 죄악시하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의 기업활동은 이와 같은 전통적 사고방식과 매우 달랐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었던⁴⁸⁾ 그들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기업활동으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 그것을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근면한 노동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성실한 경제활동과 사회 환원의 전통은 과거의 ‘돈벌이는 천하다’는 인식을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전환시킴으로써, 노동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투명한 기업경영

프로테스탄트 기업인들은 어느 누구의 강요도 없이 개인의 재산과

48) 마가복음 12장 30절 및 31절 참조.

회사의 재산을 법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또 그들은 회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증인 없이 한두 사람 사이에서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엄격한 기독교 윤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⁴⁹⁾ 이러한 상호 간의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와 투명한 기업 경영은, 이것이 비록 특정 종교의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틀림없는 ‘공동체 정신’의 일부로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여 산업화와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③ 검소한 삶

또한 프로테스탄트 기업인들은 아래와 같이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돈을 버는 것이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함이라는 생각을 탈피하였을 때 자본의 축적과 재투자가 일어남으로써 문자 그대로 ‘자본주의’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이 모여도 이자놀이, 사치를 안하고 재투자했다(p.51). 엄격한 칼뱅주의 지배를 7년밖에 받지 않았던 네덜란드에서도, 종교적으로 독실한 사람들은 거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축적열이 일어났다(p.86).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p.53).”⁵⁰⁾

결론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는 ‘공동체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투명한 경영, 양질의 노동, 그리고 자본의 재투자가 일어났다. 그들은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법적으로 분리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였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자 노동과 자본이 모여들었다. 또한 그들은 재산이 모여도 사치를 하지 않고 재투자하였으며, 모

49) 안문석, 『폭풍노도의 세월, 내게 힘을 주고 등대가 되어 준 책』, 『고대 Today』, 2006년 봄 참조.

50)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88.

아진 재산은 사회에 환원시켰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회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받으며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를 수행해 나가는 자본주의 문화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작된 자본주의는 곧 자본주의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면서, 그 자본주의를 잉태시켰던 원래의 정신, 곧 프로테스탄트 정신뿐 아니라 근대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었던 ‘공동체 정신’마저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Max Weber도 그의 저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날 (자본주의를 잉태시켰던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이제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는 이미 기계적인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정신적 지주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인용함으로 끝을 맺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필연적으로 근면, 절약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살면 부를 수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가 증가하면 자만과 세속적 애착이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때에도 현재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믿음의 점진적 타락을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 ...”

이는 요한 웨슬리가 국민들이 신앙이 바로 서면 반드시 부하게 되겠지만, 또한 국민들이 부유하게 되면 바로 그 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견한 것이다. 이 설교를 우리의 초점인 ‘공동체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 근대자본주의는 영국, 미국 등에서 ‘공동체 정신’에 의해 태동되었지만, 점차 자본주의가 기계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그 속에 지니고 있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정신 대신 탐욕이 자리 잡은 자본주의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들이닥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 시대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첫째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와 법치주의의 확립(제도 및 구조적인 요소)이었고, 둘째는 ‘돈벌이는 천한 것,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경제

〈부표 2-1〉 주요 연대표

1400 ~	르네상스
1455	인쇄기 발명
1483~1546	루터
1509~64	칼뱅
1517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522	독일어 성경
1525	영어 성경(William Tyndale)
1529	영국 헨리 8세 왕,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
1572	프랑스의 위그노 대학살(St. Bartholomew's Day)
1618	30년 전쟁
1648	영국혁명 크롬웰(의회군)의 승리
1685	프랑스 루이 14세 개신교 금지령, 추방
1703~1791	요한 웨슬리
1776	미국 독립
1789	플라스 혁명
1760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1804	나폴레옹 황제 즉위
1815~	대영제국
1833	영국 노예해방

주체들의 기존 인식 전환(문화 및 동기 부여적 요소)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화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공동체 정신’을 지목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동체 정신’은 대중을 깨움으로써 언론을 확립하였고, 이는 다시 평등사회와 민주주의로의 움직임을 이끌어냄으로써 봉건주의와 절대왕정을 청산시키고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법치주의를 확립시켰다. 또한 ‘공동체 정신’은 근면한 경제활동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토록 하였으며,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바로 이 ‘공동체 정신’에 의해 제도 및 구조적인 요소와 문화 및 동기 부여적 요소가 동시에 변화함으로써, 근대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자본주의의 태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영국 등

의 프로테스탄티즘 지역을 주로 다루었지만, 자본주의에 비단 프로테스탄티즘 정신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사회와 문화에 맞게 각기 나름대로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즉, 본 연구는 ‘공동체 정신이 무엇에 의해 발현되었느냐’보다는 ‘공동체 정신이 근대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자본주의가 본래 지니고 있던 ‘공동체 정신’은 잃어버린 채 단순히 하나의 ‘제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요즘, 양극화와 상호불신, 그리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즉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제3절 정감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체자본주의의 목표는 공동체의 발전이며, 수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창의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누가 수행할 것이며 누가 할 때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해답으로 ‘정감인(情感人)’과 ‘사회적 기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감인(情感人)은 ‘타인의 필요에 사랑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언급된 ‘도덕적 엘리트’⁵¹⁾와 일맥상통한다. 대표적인 정감인들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들 수 있다.⁵²⁾

51)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도덕적 엘리트’를 “그 자신의 본성적이고 이기적인 감정들을 가장 완전하게 규제하고 타인들의 본성과 동감적인 감정 모두에 대하여 아주 섬세한 감수성을 보이는 사람, 진정으로 부드럽고 호감가고 온화한 덕성과 모든 위대하고 외경스럽고 존경할 만한 덕성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52) 이들은 정감인 중 극히 일부의 예에 불과함을 밝혀둔다. 정감인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며, 사회적 필요에 반응하는 사회적 기업가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와 클래팸 공동체(Clapham Sect)⁵³⁾

200여 년 전 영국은 밖으로는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을 이루었지만, 안으로는 산업혁명의 극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빈부 양극화와 노동착취로 인한 아동인권 유린, 천민상업주의, 도박 및 알콜 중독자, 매춘굴과 성적 음란, 성직자들의 타락과 태만, 피폐한 농민의 삶, 도시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악랄한 노예무역이 국가 재정수입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타락한 국가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국이 당시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빅토리아 왕조라는 영국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강성한 시대를 맞게 되고 오늘날 신사의 나라이며 사회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고결한 의무를 다하는 대표적 국가로 변혁된 데에는 역사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당시 영국 사회를 개혁했던 도덕적 엘리트 윌버포스가 있었다.

Perkins(1969)⁵⁴⁾와 David(1966)⁵⁵⁾ 등은 1780~1850년 사이 영국은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야만적 국가였으나 윌버포스(1759~1833, 영국 하원의원)로 대표되는 ‘클래팸 공동체(Clapham Sect)’로 인해 추악한 오명을 벗고 가장 절제되고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국가로 변모되었고, 클래팸 공동체가 빅토리아 왕조의 탁월함 뒤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퍼거슨(Ferguson)⁵⁶⁾에 의하면, 비록 대영제국은 세계사에서 볼 때 제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노예무역, 무력탄압, 서양문명의 강요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역사상 다른 제국들과 달리 오늘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의회 민주주의 등 귀중한 가치를 남기고 전파하는 순기능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영국 복음주의와 선교정신이 있었다고

53) Garth Lean, *God's Politician*, Helmers & Howard, 1987에서 주로 발췌·요약함.

54) Harold James Perkins,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Routledge, 1969.

55) David Newsome, *The Parting of Friends*, John Murray, 1966.

56) 퍼거슨, 『제국』, 김종원 역, 민음사, 2006.

평가한다.

클래팜 공동체의 소속 인원은 불과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 그들이 이러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은 도덕적 엘리트로서의 그들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 수많은 영국의 사회지도층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나눔 운동에도 이름 없이 앞장섰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헨리 손턴 같은 사람은 독신으로 있을 때에는 그의 수입의 5/6를 남에게 베풀었고 대가족을 부양해야 했을 때에는 1/4 이상을 베풀었다. 마찬가지로 월버포스는 결혼 전까지 1/3을 남에게 주었으며, 어떤 해에는 그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3천파운드를 준 적도 있었다. 결혼 후에는 상당한 양을 자선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익명으로 하였다.

그들은 빈곤의 문제는 강요에 의한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행위에 의해서 더 잘 충족된다고 믿었다. 월버포스는 빈곤이 사회경제 질서를 개조함으로써 해결된다고는 믿지 않았으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고 인식하였으며 동시에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느끼기를 바랐다.

월버포스와 클래팜 공동체 사람들은 공동체자본주의를 이미 200여 년 전에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도덕적 리더십은 마침내 악습 철폐와 노예매매 폐지라는 사회개혁을 일구어냈으며, 그리하여 산업혁명 직후 그 어려웠던 영국 사회를 변혁하여 찬란했던 빅토리아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당시 영국 국가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노예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그의 투쟁은 처절했다. 기독교인이었던 월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의회 논쟁을 통해서 “정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클래팜 공동체에 모여든 수많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며 외롭고 기나긴 싸움을 해 나갔다. 월버포스와 그의 ‘친구들’이 살았던 클래팜 공동체에는 국회의원, 사업가, 군인, 농장주 등 다방면의 인재들이 모여 서로에게 참된 조언을 하며 사회개혁의 의지를 키워갔다.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을 북미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노예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었고, 노예무역은 연간 수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식민지 산업의 기둥이었다. 해군력 증강 등 국가안보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당시의 기득권층인 상인조합, 금융가, 재벌, 군벌, 왕족, 귀족은 월버포스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기도, 중상모략, 악의에 찬 비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그가 뜻을 세운 지 56년 만인 1833년 의회는 드디어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⁵⁷⁾

그는 또한 악습으로 타락한 사회 곳곳을 개혁해 나갔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향을 찢는 복권 등 도박제도의 폐지,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무상치료 병원의 건립, 과도한 노동시간 제한, 어린이 노동보호법 통과 등에 큰 기여를 했다.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 타개를 위한 직업교육의 실시, 야만적인 형벌제도의 대폭 개정, 가난한 자의 법과 재판에 의한 보호 등 개혁에 앞장섰다. 또한 상류사회 남자의 결혼제도 폐지에 앞장섰고 호화 파티만 일삼던 귀부인들을 각성시켜 이들을 사회봉사에 전력하도록 하는 데에 주도적인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월버포스는 공동체자본주의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다.

2. 유일한 박사⁵⁸⁾

유일한(1895~1971) 박사의 부친 유기연 옹은 서양문물에 눈뜬 상인으로서 한일합방이 되자 북간도로 건너가 항일독립운동을 도왔으며, 유일한은 이런 부친의 영향으로 1904년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미국에 건너간 유일한은 네브래스카 주에서 초중고시절을 보냈는데, 성적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네브래스카 주에서 가장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로도 이름을 날렸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유일한의 이름은 ‘유일형’이었으나 그는 조국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유일한’으로 이름마저 바꾸었다. 고등학교를 마친 유일한은 미시간대 상과계열에 입학하였고, 그는 한국

57) 노예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영국 전체에서 노예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도 무시할 수 없다.

58) <http://www.yuhan.co.kr> 및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참조.

인 자유대회에서 ‘한국국민의 목적과 열망 결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평생 그 결의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1920년 대학을 졸업한 유일한은 세계적 전기회사인 GE에 동양인 최초의 회계사로 취직했고 1년 뒤 동양현지 총책임자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922년 숙주나물 통조림 제조업체인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하였고, 1925년에는 그를 특별히 아꼈던 서재필과 유한양행(New Il-han & Co.)을 설립하였다.

1926년 서울에 유한양행을 설립한 이유는 라초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 중국에 갔다가 북간도에 거주하던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릴 뿐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려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일한은 동포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운다는 뜻을 가지고 유한양행에서 결핵약, 진통소염제(안티프라민), 혈청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유한양행은 1933년에 그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였던 안티프라민을 회사의 첫 번째 제품으로 개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소아과 의사인 미국인 부인 호미리 여사도 중일전쟁으로 조선에서 의약품이 극도로 부족해지자, 직접 소아과 병원을 개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았다.

유일한은 성실한 세금납부는 물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였다. 실례를 들면, 모르핀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간부에게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회사의 용품 하나 쓰는 일에 있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였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일한 스스로 회사 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서를 비롯한 간부진도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회사의 연필 한 자루도 개인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굴지의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요 사장인 일한이었지만 몸이 아프면 사우공제회에 가서 약을 직접 사서 복용했다. 공제회에 간 것은 거기서 약을 사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일한의 아들이나 조카라고 해도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그 좋은 약들을 공짜로 얻어먹을 수는 없었다.”⁵⁹⁾

기독교인이었던 유일한은 자신의 재산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

님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이런 믿음을 근거로 1970년 유한재단을 설립하여 직업교육기관인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공업전문대학을 세웠다. 1971년 별세하기 전 1만달러를 아들 유일선 변호사의 딸인 손녀의 학자금으로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육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지를 남겼다. 별세 당시 낡은 구두와 아끼던 몇 가지 양복이 그의 재산의 전부였다고 한다.

유일한은 혼란했던 시기인 일제 강점기를 지나온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남달리 애국심이 강했고 개인의 신념 또한 투철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인물 중에는 친일로 변절한 이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미국에서 열리는 항일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맹호군 창설 주역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OSS의 한국 고문도 맡았다.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조국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신념과 말을 실천수범함으로써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도덕적 엘리트로서 수행하였다. ‘부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유언장에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유일한은 이 땅의 공동체자본주의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3. Dr. Muhamad Yunus와 그라민 뱅크 (Grameen Bank)⁶⁰⁾

200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오늘날 생산적 복지를 통해 빈민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최초 아이디어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소액대출)을 창안하여 실천한 경제학자이다.

59) 조성기, 『유일한평전』, 작은씨앗, 2005.

60) Banker to the Poer, *The Story of the Grameen Bank, Muhamad Yunus and Alan Jolis*, India: Penguin Books, 2007과 『한국일보』, 2006. 10. 14 참조.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소위 신용이 취약한 빈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 하면서 원금보다도 수십 배 이상 더 높은 이자를 강탈하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과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싸게 대출해 준 다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생산, 마케팅 등의 경영컨설팅 등을 사후적으로 지원하여 돕는 실천적 아이디어로 소액대출시장에 일종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빈민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유누스 박사는 “신용(credit)은 가난한 사람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은행들이나 금융기업처럼 돈만 빌려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자활할 사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도덕적 엘리트이다.

유누스 박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을 모르고 자랐지만, 미국 반더빌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3년 수많은 빈민들이 가난과 자연재해로 힘없이 죽어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그가 공부했던 서구경제학에 커다란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그는 빈민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들어, 당시 고리대금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던 시골 마을주민 42명에게 27달러를 무담보로 빌려주면서 ‘자선은 의타심만 키운다’는 신념을 갖고 신용대출방식을 채택하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실시한 것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유누스 박사는 3년 뒤 자신이 직접 치타공대학 인근 은행에서 1만 타카(약 240달러)를 빌려 ‘그라민(Grameen은 마을이라는 뜻) 프로젝트’라는 소액대출 실험을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중앙은행의 예상과 달리, 결과는 놀랍게도 그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업에 성공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1979년까지 500가구를 절대빈곤에서 구해내는 생생한 기적을 체험한 후에 본격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수직을 그만두고 1983년 그라민 은행을 정식 법인으로 발족시켜 총재로 책임을 맡아 신중 금융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빈민구제사업을 시

작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150달러 내외의 소액 종자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은 2006년 현재 2,185개 지점에, 1만 8,151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형 은행으로 발전했다. 무모한 실험이라던 당초 우려와 달리 여타 은행들처럼 대출금의 대부분을 예금으로 충당하며 200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100%의 흑자경영을 실현하였다.

즉, 그라민 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활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시 저축을 통해 다른 빈민들에게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받은 600여 만명 중 무려 58%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 제도는 방글라데시에서 빈곤퇴치 외에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등 사회구조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대출받은 사람들의 96%가 여성으로, 이들이 자활사업에 성공하여 가게를 자립시킨 것은 물론 경제사회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누스 박사가 창안한 그라민 은행의 무담보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이 큰 성공을 거두자, 세계 각국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UN은 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로 정하고, 그라민 은행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선포하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저개발국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홍보 및 권장하였다.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한국을 위시해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등 37개국에서 9,200여 만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7년 미국 워싱턴에서는 139개국 2,900여 명의 마이크로크레딧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크레딧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는 빈곤퇴치의 공을 인정받아 1984년 막사이사이상, 1994년 세계식량상, 1998년 시드니 평화상을 수상했고, 2004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이 선정한 ‘지난 25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경제인’에 뽑히기도 하였고, 2006년에는 노벨상과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4. 송월주 스님⁶¹⁾

현재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이사장이자 ‘지구촌 공생회’의 대표이사인 송월주 스님은 한국 불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던 1954년,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불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득도 이후, “나만이 성불하고자 산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그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다 구제해야 한다.”는 불교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 및 보현사상(普賢思想)을 아낌없이 실천한 것이다.

송월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의 교무부장과 총무부장으로 있던 1970년대부터 소외된 이웃돕기 행사를 확대시켰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교도소, 군부대 및 고아원,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에 나선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1992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나눔의 집’ 건립 추진위원장직을 맡았다. IMF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나라사랑 금모으기’ 및 ‘실직자 단기 수련 프로그램’, ‘실직 노숙자 무료 급식소’ 등 IMF 실직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1996년에는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여러 NGO들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2003년에는 불교계 국제개발구호 NGO인 ‘지구촌 공생회’를 창립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⁶²⁾ ‘지구촌 공생회’는 심각한 식수난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의 캄포트 주민들을 위해 우물 1,000개를 파는 ‘생명의 우물 1,000’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등,⁶³⁾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1) <http://www.woljoo.com> 참조.

62) <http://www.ksm.or.kr> 참조.

63) 『동아일보』, 2007. 1. 18 참조.

이 외에도 그는 1998년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現, 함께 일하는 재단)’ 출범 시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외환위기 시 구조조정으로 속출한 실업자들을 도왔으며, 현재는 ‘함께 일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일 자리 창출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지원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정감인들은 타인의 필요에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소외계층을 꺼안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 역시 정감인과 함께 공동체자본주의를 이루어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4절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획득한 이윤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정의될 수 있다.⁶⁴⁾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그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두고 있다(OECD).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을 주주와 소유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이다(영국 통상산업부 사회적기업과).

64)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예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또는 micro-finance)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제3세계에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One Health World, 빈민층에게 서재와 도서관을 지어주는 Room to Read, 의약품 수송회사 Riders for Health, 아프리카 르완다의 Novogratx 펀드 등이 있다(권영준·심상달·정세열,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2007)에서 발췌).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주된 활동이 공동체의 이익(집합적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 및 교환인 기업이다(이탈리아).”⁶⁵⁾

이처럼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각 나라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⁶⁶⁾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나눔형 방식(착한 기업⁶⁷⁾)도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혼합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사회책임투자기관 및 사회적 기업 벤처캐피털 등도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혁신’이다. UN은 NGO와 NPO들도 효율적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NGO들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0년 9월에, 2015년까지 빈곤퇴치, 아동교육, 질병퇴치 등 8가지 사명(eight commandments)을⁶⁸⁾ 완수하겠다고

65) <http://www.sec21.or.kr>

66) 일례로, Jim Poss의 ‘BigBelly Cordless Compact System’을 들 수 있다. 이는 소형배터리와 태양열판으로 작동되는 친환경 쓰레기통 시스템으로, Massachusetts와 California 주의 거리에 이미 300개가 설치되었고 New York시 Queens구에 실험적으로 44개가 설치되었다. 300kg의 쓰레기를 18kg들이 백에 응축시키는 이 친환경쓰레기통(제작비 개당 4,000달러)으로 인해 연간 450억달러(45조원)에 달하는 미국 내 쓰레기 수거비용의 50~70%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Time*, 11 December 2006 참조.

6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기업들도 다루고 있으므로,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나눔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일반 통념상 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착한 기업이라 칭한 것으로, 나눔형 사회적 기업만이 착한 기업이라는 뜻은 아니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68) 첫째,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연명하는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임(Halve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on less than a dollar a day). 둘째,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함(Ensure all children complete primary school). 셋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동등하게 교육시킴(Educate boys and girls equally). 넷째, 5세 미만의 영·유아 사망률을 2/3까지 감소시킴(Reduce the mortality rate among children under five by two-thirds). 다섯째, 산모 사망률을 3/4까지 감소시킴(Reduce the maternal mortality rate by three-quarters). 여섯째, AIDS, 말라리아 및 기타

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창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그 수행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social venture)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NGO와 구별되는 것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도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과 혁신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공공부문과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측면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사회적 기업에게 혁신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점차 사회적 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며, 동시에 자금지원방식 또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⁶⁹⁾

이처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은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와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또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사회의 효율적 구현을 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제시되었다.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점차 진행되어 2005, 2006년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주요 질병의 확산을 막고 퇴치운동을 시작함(Halts and begin to reverse the spread of HIV/AIDS,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일곱째,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중을 절반으로 감소시킴(Halve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여덟째, 원조를 확대하고 통치구조를 개선시킴(Increase aid and improve governance).

69) 이는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익명의 검토자가 제시한 견해이다. 익명의 검토자에게 감사드린다.

법에 따라 현재(2008년 10월 말)까지 인증된 154개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는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⁷⁰⁾ 이는 국내에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배경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 에이킨(2006)은 영국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정의 및 법적 형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그는 사회적 기업이 특징적인 운동에 의해 시작된 초기와 달리, 요즘은 시민운동이나 박애주의 전통에서 시작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도 등장하고 있으며, 불우 지역 재건에 관심을 가진 분야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끄 드푸르니(2006)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CEEC)들도 점차 사회적 기업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사회적 기업을 연구한 김혜원(2007)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의 경영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였다. 조영복(2007)은 사회적 기업을 고용 없는 성장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보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찬임(2008)은 사회적 기업의 발달 배경 및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회적 기업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사회적 기업 연구는 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명시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 에이킨도 상기 연구에서 최근 불우 지역 지원 사회적 기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듯이, ‘창출한 이윤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들’이 이제는 더욱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사회적 기업 역시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주류는 나눔형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

70) 물론 인증된 사회적 기업들에는 문화예술기업 ‘노리단’, 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 ‘자바르메’ 등 자립·자활 중심이 아닌 사회적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 때문이다. 이는 자립·자활 중심의 사회적 기업은 스스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일반 영리 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자원봉사자의 접근이 용이치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통합의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⁷¹⁾ 또한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 역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며, 벌어들인 수익으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공동체자본주의의 두 중심 주체인 정감인과 사회적 기업 중 주요 연구주제인 사회적 기업,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고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사회적기업인증제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중동부 유럽국가가 새롭게 사회적 기업의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고 있다는 자끄 드 푸르니의 주장처럼, 본 연구도 국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더욱 풍부히 하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71)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체로 ‘자활공동체’가 있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미인정 자활공동체가 있다. 이 자활공동체는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한 것으로서 ‘나눔’의 실천에 주목하고 있는 본 연구의 사회적 기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는 인정 자활공동체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인정 자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상정하기 때문이다(<http://www.jahwal.or.kr> 참조). 참고로, 인정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 조직 형태는 법령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로서 자활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 2007. 8. 31 참조).

제3장

사회적 기업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앞에서 본 연구는 창출한 이윤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들, 즉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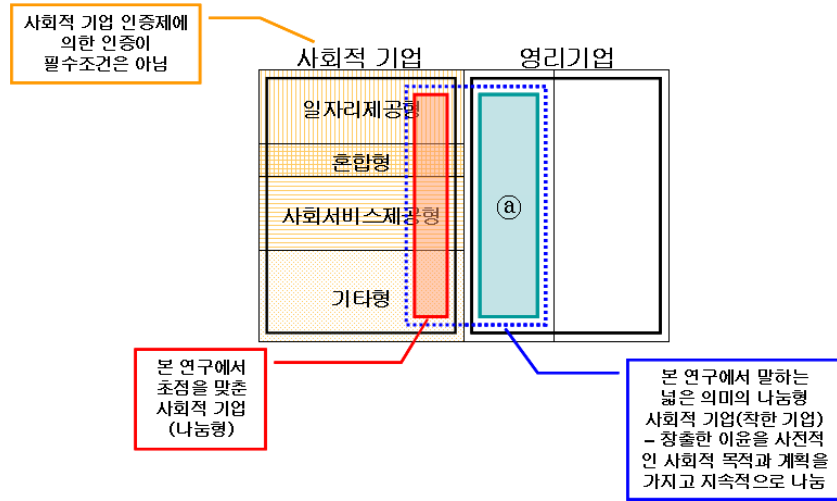
즉, [그림 3-1]에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사회적 기업'이라 명시된 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이윤 나눔은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기타형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⁷²⁾

단, 이러한 정의하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나눔 활동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어느 목적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전적으로 정해야 하고, ② 나눔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회공헌활동은 계획성 없이 즉흥적·일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⁷³⁾

72) 사각형 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며, 이 둘을 합친 점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나눔형 사회적 기업'이다.

73) 만약 어떤 영리기업이 사전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기업은 넓은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그림 3-1의 ㉔에 해당).

[그림 3-1] 사회적 기업 개념도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우선 창출한 수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외계층 및 제3세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은 자신들이 누구를 돕는지 알림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줄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자신 이외의 타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부족하고, 이는 남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차단시킬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이웃을 관심영역으로 초대하는 상기자(reminder)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의 접착점이 될 수 있다. 비록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더라도, 혼자서 이를 실제로 또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부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

업은 그러한 개인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는 영리기업도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⁷⁴⁾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새롭게 설립될 수도 있고 기존의 기업이 전환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RED) 캠페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RED) 캠페인은 록밴드 U2의 보컬 보노(BONO, 본명은 Paul David Hewson)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여러 기업 경영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계적인 빈곤과 질병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몇몇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애플(APPLE), 컨버스(CONVERSE), 델(DELL),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갭(GAP), 홀마크(HALLMAR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RED) 캠페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약간 변경하여 ‘(자신들의 브랜드명)RED’라는 이름을 붙이고 판매한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빨간색 아이팟 셔플에 (Apple) RED 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형식이다. 그들은 이 제품들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AIDS 등의 질병 퇴치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RED) 캠페인은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 1억달러를 조성하여 제3세계의 8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약품을 제공하고, 1,60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HIV 테스트를 받게 해주었다.⁷⁵⁾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에는 전 부분이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띠도록 새롭게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RED) 캠페인의 사례처럼 자신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 기업의 형식으로 전환한 기존 영리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⁷⁶⁾ 그리고 후자의 경우 기존 기업들이 그동안 조성해 온 기업의 인지도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크고 빠른 사회의 호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74) [그림 3-1]의 ㉔에 해당.

75) *Time*, 31 July 2008 참조.

76) *Time*, 31 July 2008 참조.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

본 절에서는 국내외 나눔형 사회적 기업의 몇 가지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이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1. 국 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여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사회적 기업을 이윤 창출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탁월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뉴먼즈 오운’과 ‘퍼 스콜라스’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Newman's Own⁷⁷⁾(미국)

영화 ‘스팅’과 ‘내일을 향해 쏴라’ 등으로 잘 알려진 명배우 ‘폴 뉴먼(Paul Newman)’은 1982년 ‘뉴먼즈 오운’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회적 기업가이기도 하다. 뉴먼즈 오운은 인공 조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셀러드 드레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세후 이익의 100%를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뉴먼과 그의 오랜 친구 호치너(A.E. Hotchner)는 주위 친구들에게 집에서 만든 셀러드 드레싱을 와인병에 담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주곤 했다. 친구들이 드레싱을 더 부탁할 정도로 반응이 좋자, 1982년 뉴먼과 호치너는 2,000병의 비니그레트 드레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뉴먼은 상업적인 제품에 자신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라벨에 그의 얼굴을 넣지 않고는 단 한 병의 드레싱도 팔 수 없을 것이라는 동료의 조언을 따라, 그는 자신의 얼굴을 사용하되

77) http://www.marshallcavendish.us/marshallcavendish-us/attachment/reference/catalog/social_studies/business/0761474307-2.pdf 및 <http://www.newmansown.com> 참조.

모든 이익은 자선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회사의 전략은 자선적인 목적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폴 뉴먼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실패하거나 적자를 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1년 후인 1983년, 약 320만달러(\$3,204,355)의 매출과 39만달러의 순이익을 냈으며,⁷⁸⁾ 그 이후에도 가파른 성장을 계속했다. 이처럼 뉴먼즈 오운이 놀라운 성공신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을 비단 ‘폴 뉴먼’의 유명세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뉴먼즈 오운의 진짜 경쟁력은 ‘뛰어난 제품’과 ‘착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목적 추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① 뛰어난 제품

뉴먼즈 오운은 현재 150여 가지의 드레싱 및 음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폴 뉴먼에 의해 개발되거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또한 방부제와 인공 감미료가 필수적이라는 업계의 상식을 깨고, 100% 천연의 재료를 사용했다. 이 외에도 뉴먼즈 오운은 신제품 출시 전에 여러 번의 시식 테스트를 거쳐 ‘맛’을 보증하는 등,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② 착한 기업

뉴먼즈 오운은 ‘Shameless exploitation in pursuit of the Common Good.’이라는 회사의 모토대로, 1982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뉴먼즈 오운 재단’을 통해 총 2억 5천만달러를 기부했다. 현재 뉴먼즈 오운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선단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선단체의 종류로는 마약 및 알콜 남용 교육단체, 아프리카의 가뭄 구호단체,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단체 등 매우 다양한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홀 인 더 월 갱 캠프’를 들 수 있다. 이 캠프는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매년 여름 미국·영국·아일랜드·프랑스에서 개최된다. 이러한 뉴먼즈 오운의 사회

78) 정선희, 『사회적 기업』, 다우, 2004. 12, p.103 참조.

적 목적 추구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또한 뉴먼즈 오운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충족시켰다.

이처럼 뉴먼즈 오운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천연 드레싱을 제조하여 미국 전역에 판매하고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개인 소유의 일반 영리기업으로 운영되지만 수익 전액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⁷⁹⁾

나. Per Scholas⁸⁰⁾(미국)

퍼 스콜라스는 폐컴퓨터를 기업들로부터 수집·재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라틴어로 'for schools'를 의미하는 퍼 스콜라스는 저소득층이 정보 격차로 인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빈곤지역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퍼 스콜라스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폐컴퓨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둘째 저소득층에 컴퓨터를 보급하며, 셋째 그들에게 컴퓨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각각의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폐컴퓨터의 재활용

퍼 스콜라스는 도이치뱅크, 루프트한자 항공, 제이피 모건 등 150여 개 기업의 오래된 컴퓨터를 처리하고 재활용한다. 그들은 Department of Defense security protocol을 이용해 기업의 데이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며, 언제든지 컴퓨터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방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퍼 스콜라스의 폐컴퓨터 처리과정은 모든 도시와 주 및 연방의 환경규제정책을 충족시키며, 세계 혜택이 가능한 컴퓨터 증여 확인 서류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꺼이 폐컴퓨터

79) 『주간한국』, 2007. 10. 24 참조.

80) <http://www.perscholas.org> 참조.

및 구형 컴퓨터를 펌 스콜라스에 기증한다.

②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보급

펌 스콜라스는 폐컴퓨터를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리·재조립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학교에 245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는 주로 전국의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정보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매 채널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⁸¹⁾

③ 컴퓨터 기술 교육 프로그램

15주 동안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과정 중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재료(7,500달러)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은 매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력서를 쓰는 방법이나 인터뷰 스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15명 모집에 100여 명의 참가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또한 좋아서, 프로그램 졸업생의 80% 정도는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며 일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보수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폐컴퓨터 처리 문제’와 ‘정보 격차’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읽어냄으로써 수익의 기회를 포착한⁸²⁾ 펌 스콜라스는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지금까지 65,000명에게 가정용 컴퓨터를 보급했으며, 1,900명의 저소득층 성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또한 750,000대의 컴퓨터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적·경제적인 기여도 이루어냈으며, 빈곤지역의 의회구에 5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착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2. 국 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활이 아닌 ‘나눔’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기

81) 정선희, 『사회적 기업』, 다우, 2004. 12, p.50 참조.

82) 정선희, 『사회적 기업』, 다우, 2004. 12, p.50 참조.

업의 성공사례를 착한 가게인 ‘사랑의 줄잇기 가게’와 ‘아름다운 가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사랑의 줄잇기 가게

사랑의 줄잇기는 작은 사랑의 손길들을 모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 옷을 위로하고 섬기면서 사랑의 줄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랑의 문화운동으로, 이 운동은 주로 ‘사랑의 줄잇기 가게’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영국의 OXFam과 같은 나눔 가게로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랑의 줄잇기는 추위에 떨고 있는 2,0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몽골의 값싼 양털로 만든 퀼트를 보내고자 2002년에 한국을 방문한 한 스위스 여인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녀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개인으로부터 또 아파트 등지로부터 옷을 모아서 세탁 및 다림질을 한 후, 벼룩 시장과 복지관에서 자선바자회를 열어 판매했다. 이 바자회는 제일은행 본점, 국회, KBS, 광화문, 교회 등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며, 2003년 9 월에는 지속적인 사랑의 줄잇기 진행을 위해 첫 ‘사랑의 줄잇기 가게’ 상설매장(회기점)을 오픈하였다. 현재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회기점, 아프리카점, 서빙고점, 양재점, 외대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재고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의류 등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아 정성껏 손질한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상품들을 사랑의 줄잇기 가게에서 판매하며, 이 중 판매할 수 없는 물품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증한다. 판매에 따른 이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자체사업보다는 다른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랑의 줄잇기 가게’의 모토는 ‘북한을 따뜻하게, 아프리카를 밝게, 이웃에게 희망을’이며, 이들은 이 모토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바자회 및 가게의 이익금으로 겨울내의나 양말 등을 사서 북한에 보내거나, 기증받은 의류 중 새 옷을 골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북한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를 밝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줄잇기 Bright

Africa점'의 수익으로 잠비아 통가부족이 사는 맘블레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특산물을 수입·판매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으로 동일 지역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난치병 어린이 후원이나 소년소녀가장 돌보기, 장애인 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줄잇기 판매수익금 지원내역에 따르면, 서빙고점 한 곳에서 한 해 동안 나눔에 사용한 금액이 2005년에는 68,127,640원, 그리고 2007년에는 108,833,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랑의 줄잇기 가게가 이렇게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① 끊임없는 혁신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 이들은 기증받은 의류 및 물품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만족을 제공하고자, 기업의 재고를 값싸게 구매하여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현재는, 일반 영리 가게와 경쟁하여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브랜드 상품과 가게 내부 인테리어 마련에 노력하며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② 목적형 운영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목적형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고정 목적형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줄잇기 Bright Africa 점'은 판매 수익으로 'Bright Africa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변동 목적형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줄잇기 온누리점'은 지원요청을 받은 여러 안건을 매달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그 달의 목적을 정한 후, 한 달 동안 해당 목적을 전적으로 지원한다.⁸³⁾ 이처럼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자신들의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참여자들이나 구매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소외계층을 기억하며, 그들을 지원해야겠다는 동기를 갖게 한다.⁸⁴⁾

83) 단,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지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 월 이익의 30% 이내(혹은 100만~200만원 사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4) 이는 '뉴먼즈 오운'이 자신들의 기부 액수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③ 풍부한 인적자원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 매장 설치와 인테리어, 로고 및 포스터 디자인 등에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에도 사랑의 줄잇기 봉사자들은 기증품의 수선·세탁·다리미질과 상품의 판매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업종 특성상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일이 잦기 때문에 남성들의 노력봉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감호소의 지원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명령을 받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봉사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가 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고객이 사주는 가게가 아니라 사고 싶어서 찾아오는 가게’가 되고 있다. 또한 이익금의 전액을 나눔에 사용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희망등대’가 되겠다는 설립 초기의 비전처럼,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우리 사회 착한 가게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나. 아름다운 가게⁸⁵⁾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그에 따른 이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1호점인 안국점을 개점한 이후,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8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기증하는 ‘나눔’과 자연을 생각하고 자원을 아끼는 ‘순환’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크게 일곱 가지 활동(①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자선가게’, ② 기증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수선하는 ‘순환사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목적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목적에 공감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85) <http://www.beautifulstore.org> 참조.

업’, ③ 정기 상설 베품시장인 ‘아름다운 나눔 장터’, ④ 매장이 없는 지역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움직이는 가게’, ⑤ 리사이클링 브랜드 ‘에코파티 메아리’, ⑥ 대안무역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무역’, ⑦ 지속 가능한 제3세계 지원사업을 위한 ‘국제지원 모금’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가게의 수익금을 전액 공익과 자선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 나눔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다. 매장 인근지역의 차상위 계층·수급자·일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 빈곤가정 수혜자에게 쌀과 생활용품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환아를 돕고 그들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초록산타 정기배분’ 등을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현물 나눔, 문화 나눔, 매장테마배분, 국제구호사업 수익 나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이처럼 적극적인 사업 및 사회 활동으로, 2006년 87억여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다. 또한 경제적 투자수익률(ROI)은 3.03%,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은 4.4%를 기록하며,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⁸⁶⁾ 또한 2008년 6월 한 달간의 나눔 내역 총계가 134,879,846원(현물 나눔 제외)에 이를 정도로 사회 공헌도도 높다. 아름다운 가게의 이러한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했다.

① 뷰티풀 파트너

아름다운 가게는 자원봉사자, 기업, 언론, NGO들과의 파트너십을 활발히 추진하고 활용했으며, 이는 아름다운 가게가 널리 알려지고 확산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박원순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 또한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가 빠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수많은 뷰티풀 파트너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 기업이 되었든, 언론이 되었든, NPO나 NGO가 되었든 간에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결코 그 단체나 조직이나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도와주고 호응해 주는 우군도 없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⁸⁷⁾

86) 『머니투데이』, 2007. 6. 5 참조.

② 적극적인 홍보

이들의 홍보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것으로, 첫째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홍보이고, 둘째는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홍보이다. 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후자는 그들에게 돕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게의 손숙 대표는 이에 대해 “누군가 돕고 싶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가게가 그런 분들의 마음의 족수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⁸⁸⁾고 언급했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는 방송인 손숙이 공동대표로, 배우 유동근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소장품 기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개최하기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③ 철저한 투명성

아름다운 가게는 ‘정직하고 투명한 살림살이’를 지향하며 모든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매월의 각 매장 판매 수입과 기부금 수입내역·운영비와 기부금 사용내용·나눔내역 및 재무제표를 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기꺼이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도움에 대한 의미 또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가게는 다양한 활동을 뷰티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모두가 놀랄 만한 급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지금도 이들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공익과 자선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 사회를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줄잇기 가게’와 ‘아름다운 가게’가 멋진 성공사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립·자활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정부로부

87) 박원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 프리 월』, 중앙북스, 2007. 11, p.141.

88) 『한국일보』, 2007. 10. 14.

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이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재정적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남을 돕는 것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의 하나인 ‘강원임업’의 경우도 이익잉여금의 5%를 후발 자활공동체 지원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정관상에 명시하고 있으나, 부채상환으로 인해 이것이 다소 미뤄졌다⁸⁹⁾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활뿐만 아니라 나눔에도 주목하는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정무역 커피전문점 ‘카페 티모르’는 “봉급과 재투자비용을 제한해 최소한 수입의 3분의 1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⁹⁰⁾ 쓰는 것을 경영목표로 세웠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대학생들의 동아리 ‘넥스터스’는 ‘rainbow bridge’라는 사회적 기업 유통 벤처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장애인들이 만든 ‘위캔쿠키’ 판매 수익금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려 진흙 쿠키까지 먹는 아이티 공화국을 도울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사회적 기업 개념 확대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사회적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성공사례 역시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기업이 과연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바로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영리 기업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89) 정선희, 『한국의 사회적 기업』, 다우, 2005. 11, p.192 참조.

90) 『조선일보』, 2008. 3. 10.

1. 착한 목적의 수익 창출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이 여타의 기업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홍보효과를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표 3-1>~<표 3-5>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랑의 줄잇기’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진율이 대체적으로 일정하므로, 지원금액을 통해 그들의 수익 현황(즉, 판매 현황)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랑의 줄잇기 서빙고점’은 매달의 지원대상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며 판매활동을 벌임으로써, 소비자들이 판매목적에 공감하느냐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상기의 지원금액 자료는 소비자의 목적 공감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수익의 창출에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판매하는 물건의 품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운영방식이나 계절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랑의 줄잇기의 경우도 운영방식이 점차 변화하였다. 2005년에는 자원봉사인력으로 운영하였고, 2006년에는 간사 1명을 통해 운영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⁹¹⁾ 단, 2006년에는 간사에게 권한 위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금액이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07~08년에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개점 초기에는 기증품과 중고의류를 취급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아울렛 상품, 브랜드 상품으로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 나갔고, 이는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운영방식의 변화와 취급 품목의 고급화는 시간의 흐름에

91)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연간 약 1,0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매달 2명분의 고정급 1,600,000원과 gross margin의 20%가 1,600,000원을 넘어갈 경우 제공한 인센티브 금액이 소요되었다.

〈표 3-1〉 사랑의 줄이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5년)

(단위: 원)

월	수익금의 지원용도	지원금	합계	교회 내(A)/ 외(B)	국내 (C)/ 외(D)
1월	쓰나미 참사	6,863,940	6,863,940	B	D
2월	용산의 노숙자센터 지원	3,500,000			
	외국인근로자 구정잔치	500,000	4,000,000	B	C
3월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3,360,000	3,360,000	B	C
4월	북한농업 개발	4,701,300			
	중국인유학생 전도	500,000			
	적립	1,000,000	6,201,300	B	D
5월	아프리카 에이즈 어린이 양육 및 에이즈 예방	9,302,400			
	적립	500,000	9,802,400	B	D
6월	한국인입양인 고국방문 지원	3,500,000			
	예루살렘평화행진 2005	3,500,000			
	적립	500,000	7,500,000	B	D
7월	외국인근로자 쉼터(shelter) 마련	6,000,000			
	적립	500,000	6,500,000	A	C
8월	탈북자 지원	5,200,000	5,200,000	B	C
9월	황해도 천덕리 농장 지원	4,800,000			
	적립	1,000,000	5,800,000	B	D
10월	선교사자녀 장학금 지원	5,700,000	5,700,000	A	D
11월	파키스탄 지진피해자 지원	9,700,000	9,700,000	A	D
12월	서울지역빈민촌 사랑의 연탄 배달	4,500,000	4,500,000	A	C
합계		75,127,640	75,127,640		
평균		6,260,637	6,260,637		

〈표 3-2〉 사랑의 줄이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6년)

(단위: 원)

월	수익금의 지원용도	지원금	합계	교회 내(A)/ 외(B)	국내 (C)/ 외(D)
1월	대전소년원, 외국인구정잔치	1,100,000			
	민족사랑공동체(용산노숙자)	1,000,000	2,100,000	A	C
2월	양재 탈북자 센터	5,800,000	5,800,000	A	C
3월	북한농업개발	4,000,000	4,000,000	B	D
4월	은혜교회 외국인전도집회	1,000,000	1,000,000	-	-
5월	아프리카 에이즈 어린이	8,300,000	8,300,000	B	D
6월	국내 아웃리치, 사랑이 꽃피는 집	5,000,000	5,000,000	A	C
7월	북한농업 개발	5,000,000	5,000,000	B	D
8월	해외입양인 선교, 수양부모	5,000,000	5,000,000	B	D
9월	아프리카 에이즈 어린이	5,000,000			
	DRS	1,000,000	6,000,000	B	D
10월	키비(이스라엘)	6,000,000			
	사랑이 꽃피는 집	1,000,000	7,000,000	A	D
11월	통일준비네트워크	6,000,000			
	일본어예배 유학생	1,000,000	7,000,000	B	D
12월	베트남 수재민	2,000,000			
	아프리카 의료	1,400,000			
	춘천소년원 의료	1,500,000			
	일본국제결혼가정, 일본유학생	3,000,000			
	적립금 사용	-2,000,000	5,900,000	A	D
합계		62,100,000	62,100,000		
평균		5,554,545	5,554,545 ⁹²⁾		

주: 4월의 지원금은 공사비 지출 이후의 금액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

92) 4월 데이터는 평균 계산 시에도 제외했음.

〈표 3-3〉 사랑의 줄이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7년)

(단위: 원)

월	수익금의 지원용도	지원금	합계	교회 내(A)/ 외(B)	국내 (C)/ 외(D)
1월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 지원	5,500,000	5,500,000	B	D
2월	중국인유학생 구정 주사랑 나눔 집회	1,000,000			
	용산역 노숙자 쉼터	1,500,000			
	장애우 선교위원회 악기구입 지원	800,000	3,300,000	A	C
3월	북한 농촌 사랑의 불 밝히기	5,500,000			
	서빙고러시아공동체(김발레리) 장학 후원	1,300,000			
	화천 사랑이 꽃피는 집 후원	480,000	7,280,000	B	D
4월	NGO 연합 기빙백 지원	8,000,000			
	적립	900,000	8,900,000	E	E
5월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 자녀 쉼터(shelter) 건립	5,000,000			
	장애우 팜 OMC	1,000,000			
	중보기도팀 아프리카 단기선교	1,000,000			
	적립	500,000	7,500,000	B	D
6월	일본 요도바시 열린예배 지원	10,500,000			
	YMCA 장애우 만남의 잔치	700,000			
	용산역(노숙자 수련회 의류지원)	500,000			
	화천 사랑이 꽃피는 집 후원	200,000			
	적립 및 지원	1,100,000	13,000,000	A	D
7월	북한 농촌 지원(불밝히기)	8,000,000			
	북한 선교사님 지원	1,000,000			
	적립	500,000	9,500,000	B	D
8월	양재 탈북자 종합회관 여름수련회지원	2,500,000			
	해외 입양인 목회 지원	2,500,000			
	KIBI 이스라엘 비전트립	1,000,000			
	적립	500,000	6,500,000	A	C

〈표 3-3〉의 계속

(단위: 원)

월	수익금의 지원용도	지원금	합계	교회 내(A)/ 외(B)	국내 (C)/ 외(D)
9월	외국인 추석 만남의 잔치 지원	500,000			
	사랑부(장애우) 콤팩 아웃리치	500,000			
	NGO 연합행사 ‘기빙백 2007’ 지원	12,980,000			
	적립	500,000			
	적립금 사용	-2,955,000	11,525,000	E	E
10월	NGO 연합행사 ‘기빙백 2007’ 지원	13,396,000			
	용산역 노숙인 겨울의류 지원	600,000			
	서울역 노숙인 급식시설 지원	2,500,000			
	동부노인 요양센터 의류 지원(OEM)	1,500,000			
	양지노인 요양센터 의류 지원(복지재단)	240,000			
	적립	1,000,000			
	적립금 사용	-4,658,000	14,578,000	E	E
11월	북한(황해도 천덕리 농가건축) 지원	7,500,000			
	대전 소년원(새사람 선교팀) 사역	1,000,000			
	전도폭발(화곡동 교역자 주거지원) 사역	1,000,000			
	아프리카 아동의류	1,750,000			
	경배와 찬양의 외국인지원센터	4,000,000			
	적립	1,600,000	16,850,000	B	D
12월	야치오 온누리 교회	4,000,000			
	병원사역팀	400,000	4,400,000	A	C
합계		108,833,000	108,833,000		
평균		9,069,417	9,069,417		

〈표 3-4〉 사랑의 줄이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2008년)

(단위: 원)

월	수익금의 지원용도	지원금	합계	교회 내(A)/ 외(B)	국내 (C) /외(D)
1월	용산역노숙자겨울의류	1,000,000			
	온누리미션 후원	500,000			
	중국어 예배	1,500,000			
	외대선교센터(장학금 지원)	5,000,000			
	적립	1,000,000	9,000,000	B	C
2월	기빙백 지원금	6,100,000			
	적립	1,000,000	7,100,000	E	E
3월	장애우선교부 기부금	1,000,000			
	아프리카 잠비아학교 건립	7,000,000			
	적립	1,000,000	9,000,000	B	D
4월	국경없는 교회(안산)	1,500,000			
	누리사랑(장애우)	1,500,000			
	기빙백 지원금	6,000,000			
	적립	1,000,000	10,000,000	E	E
5월	황해도 농장 물품운송	7,000,000			
	유대인사역	2,100,000			
	누리사랑(장애우)	1,500,000			
	적립	1,000,000	11,600,000	B	D
6월	몽골이발산교회	1,000,000			
	러시아고아원컴퓨터	2,100,000			
	누리사랑수련회(장애우)	1,500,000			
	탈북자종합회관수련회	2,000,000			
	여름아웃리치	500,000			
	찬양사역자 장학금	2,000,000			
	적립	2,000,000	11,100,000	A	C
7월	여름아웃리치	8,300,000			
	적립	1,000,000	9,300,000	A	D
8월	기빙백 지원금 외	8,800,000			
	적립	1,000,000	9,800,000	E	E
9월	Bright Africa 및 수리	9,000,000			
	적립	1,000,000	10,000,000	B	D
합계		86,900,000	86,900,000		
평균		9,655,556	9,655,556		

〈표 3-5〉 사랑의 줄잇기 서빙고점의 이익금 지원 현황(전체)

(단위: 원)

	지원금	횟 수	평 균
연결기관이 교회 내부일 경우(A)	99,800,000	15	6,653,333
연결기관이 교회 외부일 경우(B)	170,257,640	23	7,402,506
지원대상이 국내일 경우(C)	70,760,000	13	5,443,077
지원대상이 국외일 경우(D)	199,297,640	25	7,971,906
기빙백 지원(E)	61,903,000	6	10,317,167

주: 1) 교회 내/외 및 국내/외 여부 판단은 해당 월의 대표적인 이익금 지원처에 따라 분류.

2) 북한은 국외로 분류.

따라 사랑의 줄잇기의 수익 변화를 가져왔으나, 목적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의 자료는 45개월간의 데이터이므로 계절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Giving Back 지원을 제외한 38개의 데이터를 연결기관의 교회 내·외부 여부 및 지원대상의 국내외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이는 착한 목적일수록 소비자의 공감을 많이 얻음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착한 정도의 기준은 ‘수혜자 및 연결기관이 ‘나 자신’과 거리가 멀수록 착하다’로 삼았다. 즉,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을 도울수록 착하다고 본 것이다.

위의 표에서 A는 교회 내부 기관을 연결기관으로 삼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경우이며, B는 교회 외부 기관을 통하는 경우이다. 또한 C는 수익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국내 기관인 경우이며, D는 국외 기관인 경우이다. E는 NGO 연합 행사 ‘Giving Back’을 지원한 경우로, 별도 분류하였다. 이러한 각 분류에 따른 지원금액의 평균을 구한 결과가 <표 3-5>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연결기관이 교회 외부일 경우가 내부일 경우보다, 또한 지원대상이 국외일 경우가 국내일 경우보다 지원금액의 평균이 각

각 약 11%, 46%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원금액이 판매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때, 사람들은 착한 목적일수록 더욱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은 수익의 증대를 가져옴을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특히, NGO 연합 행사 Giving Back을 지원하는 달의 평균 금액이 10,317,167원에 이르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북한 및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Giving Back의 착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결과이다. 또한 Giving Back 행사가 이루어진 직후의 달인 2007년 11월의 지원금 또한 높은 액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 홍보효과가 이 시기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좋은 목적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지 않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긴 하지만 ‘목적의 공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은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우수 인재의 봉사 확보

착한 목적의 수익 창출 외에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인재의 봉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타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시대의 전 세계 청년들은 그들이 착하다고 느끼는 조직에서 일하길 원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훌륭한 인력을 유치하고 보유하는 것이 용이해진다고 주장했다.⁹³⁾ 물론 이는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이고, 높은 보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끌어들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도 봉사 차원에서 일할 수

93) *Time*, 31 July 2008 참조.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비단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착한 목적의 수익 창출효과와 우수 인재 확보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획득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제4절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애로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자본주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앞 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영리기업에 비해 착한 목적에 대한 공감으로 수익 창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인재의 봉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뒤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함께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

국내의 사회적 기업은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자선을 베푸는 형태로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기업 자체의 규모는 물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당시에 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기업 지원책은 NGO에 의한 컨설팅과 자금 대부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5년 12월 5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2006년 3월 23일에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에 의해 「사회적 기업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⁹⁴⁾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7년 7월 1일 마침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2008년 10월 말 현재 346개의 기관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이 중 154개의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만큼 그 수는 증가하였다. 또한 신청 대비 인증률 역시 초기 33%에서 59%로 상승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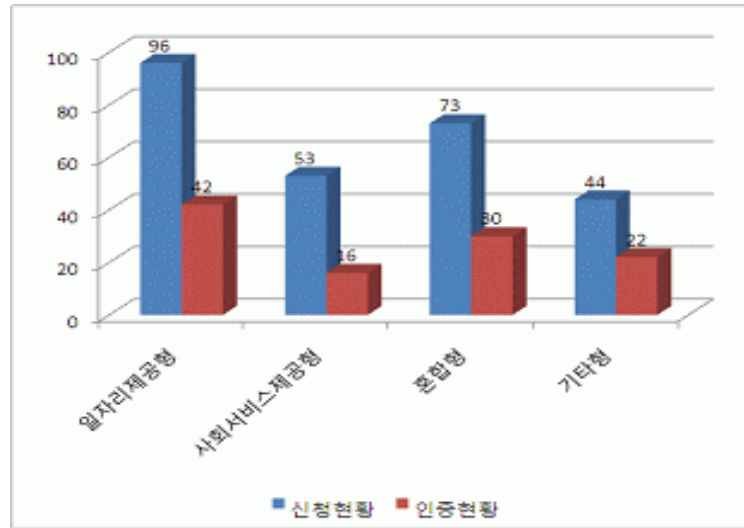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국내에서 인식되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윤 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이라는 기존에 통용되던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이윤 창출 측면은 약화되고 사회적 목적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부분에 다소 국한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사회적 기업을 구분하는 유형을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동 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서비스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그리고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 축소는 창출한 수익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눔형’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현 인증제상에서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기타형 사회적 기업에는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주를 이루며, 나눔형 사회적 기업이 기타형에 속한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나눔형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그것이 사회적기업인증제에 의해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4) 조영복,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원, 2007, p.35 참조.

[그림 3-2] 사회적 기업 유형별 인증 현황



* 노동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 2008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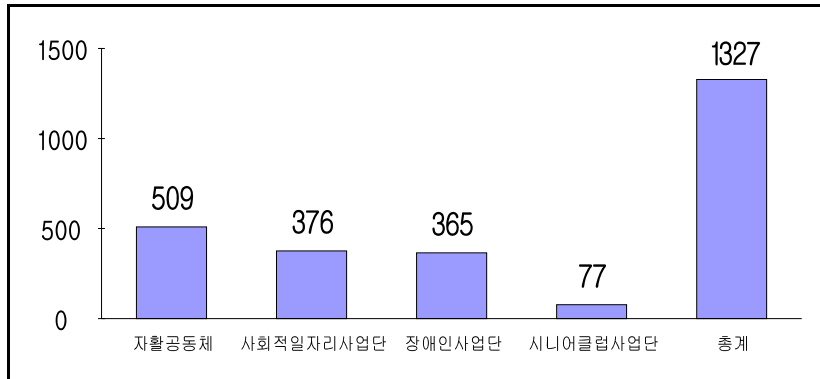
이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단이 1,327개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⁹⁵⁾와, 사회적 기업이 대학 캠퍼스 내의 동아리들에게도 점차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관심 분야를 동아리를 통해 주로 다룬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기업 관련 동아리의 증가는 학생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증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사회적 기업 관련 동아리의 활동들이 학술 연구부터 실제 창업까지 다방면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학생들에게 단지 관심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여의 영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내 사회적 기업의 애로요인

국내 사회적 기업의 애로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95) 업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현황 연구』, 2007 참조.

[그림 3-3]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단



자료: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현황 연구』, 2007에서 발췌.

<표 3-6> 2005년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관련 동아리

동아리명	설립 취지	활동 인원	시작 시기
SIFE	대학생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제에 도전하고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리더로 성장	16개 대학 400여명	2005년
SNU CSR Network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학습 연구하고 관련 현장 활동 수행	서울대 25명	2006년
큐빅스	사회의 지속 가능성 연구	국민대 10명	2006년
WISH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 제공	서울대 20명	2007년
NEXTERS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끌어안는 기업이 정신의 실천	12개 대학 37명	2007년
YeSS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의 모임	18개 대학 31명	2008년

첫째는 경영 마인드 및 경영 능력의 부족이고, 둘째는 사회적 지원 동원력의 부족이며, 셋째는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능력 취약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인증제에 의해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는 자활·자

립 중심의 성격으로 인해 경영 전문가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합류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가. 경영 마인드 및 경영능력의 부재

사회적 기업들이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경영 마인드 및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도 엄연히 ‘기업’으로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복지의 측면에 주로 맞추어져 있고 정부의 인증 요건 역시 그들로 하여금 이익 달성이 필수 목표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의 이윤 창출 측면이 다소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단적인 예로 현재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사회복지전문가들로서, 경영 마인드와 관련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인력의 전문화가 없는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의 사회적 기업 기피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정감인의 마음과 함께 경영 마인드 및 경영능력도 동시에 갖춘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 사회적 지원 동원력의 부족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초기 단계에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전문인력의 연결, 각종 경영자문 제공, 사회적 기업의 홍보 대행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회적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기업들 역시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대신 소규모의 기업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회적 기업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기는 쉽지 않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사회적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생존 노력을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전문단체를 통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 규모의 영세성에서 오는 사회적 지원 동원력 부족을 비롯한 각종 어려움을 훨씬 효율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관리 능력 취약

국내 사회적 기업은 그 조직 문화상 성과 우선의 보상체계 마련이 쉽지 않다. 또한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추진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⁹⁶⁾는 새로운 전문인력의 유입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재생산 역시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운영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분야의 한 사회적 기업이 전문 금융인력의 부재로 소액 용자 이후 관리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 예이다.⁹⁷⁾

또한 사회적 기업은 확보된 인적자원을 적절히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해당 사회적 기업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컨설턴트 및 자원 봉사자는 사회적 기업의 현장에서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동부의 용역으로 파견되는 컨설턴트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제공할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부족하다. 이는 인력을 관리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육 및 관리는 사회

96) 이은애, 「특강 자료—사회적 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 입문 교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2008. 1. 참고

97) 제3절의 <표 3-1>에서 <표 3-4>는 사랑의 줄이기 서빙고점의 월평균 지원액(순수익)이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그전보다 50%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과제 도입 이후 매장 간사가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기업에도 성과보상제도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맡아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를 대행해 주는 지원시스템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 사회적기업인증제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은 나눔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주체의 법적자격을 획득하는 데 각종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랑의 줄잇기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사례는 나눔을 위한 가게를 창업 및 운영하는 교회와 관련된 하나의 예시이지만, 이를 통해 교회뿐만 아닌 다른 종교단체들도 사회적기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단체의 나눔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개별 교회가 나눔을 위한 가게를 창업할 때 이들은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개별 교회는 정식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에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고 한다. 개별 교회가 아닌 그 교회 소속교단의 법인격을 사용하는 것은 교단적 차원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면제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게 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혹은 법인격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록 소규모 가게라 하더라도 법인에 해당되는 세무자료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 회기동의 사랑의 줄잇기 가게가 무선신용카드 단말기를 확보하는 데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단순히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사용주체가 이동통신법상의 규정에 법인과 개인 두 가지 경우만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교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인번호가 없어지고 사업자 번호만 남게 되는데, 이처럼 법인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다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 자격 미달로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회적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제4장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사회적 기업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의 영세성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사회적 기업의 애로요인들을 민간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적자원의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휴먼뱅크와 타임뱅크 활용, 경영 마인드 및 경영능력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회적 지원 동원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제 구축 지원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 효과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방안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방법에 대한 의견도 제안하였다.

1. 휴먼뱅크와 타임뱅크의 활용

휴먼뱅크(Human Bank)란 자원봉사자 및 착한 전문가, 은퇴자 등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훈련시킨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봉사처에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타임뱅크(Time Bank)⁹⁸⁾는 봉사를 한 사람들의 봉사마일리지를 기록하여, 기준

시간 이상이 되면 자신이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봉사를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 두 제도를 서로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휴먼뱅크와 타임뱅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먼저, 휴먼뱅크에 가맹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단체들이 자원봉사자, 전문 컨설턴트, 퇴직인력 등 다양한 필요 인력들을 모집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된 인력들에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겸용 가능한 ‘정감인 카드’를 발행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집 인력들의 정보(특히, 근무 및 봉사 가능 분야에 대한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게 되고, 휴먼뱅크는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근거로 사회적 기업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켜 줄 수 있다.

한편, 정감인 카드를 통해 사회적 기업 자원 봉사자를 위한 타임뱅크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카드에 시간 단위의 봉사마일리지를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휴먼뱅크에 있는 타임뱅크에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봉사마일리지를 봉사현장에서 카드에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봉사자가 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를 해당 사회적 기업에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단체들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통장’을 발행하고 있으나, 봉사마일리지를 기록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통장의 관리가 자원봉사센터와 봉사자 수요처에서 이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사자가 통장을 별도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방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원 봉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8) 시간을 화폐로 사용하는 타임달러(Time Dollar)의 개념은 에드가 칸(Edgar Kahn)이 창시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한 시간을 사용한 경우 1타임달러를 벌고, 그 1타임달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한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해주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타임뱅크는 22개국에서 사회변혁운동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휴먼뱅크와 타임뱅크를 접목시킨 서비스는 회원 및 봉사마일리지의 관리와 자원봉사 수요 및 공급의 전국적인 연결을 가능케 해준다. 이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50억~100억원 정도의 정보화 시스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드사용으로 인한 포인트를 카드 회원들로부터 기부받고 금융기관에서도 수수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시스템 구축비용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후에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⁹⁹⁾ 자립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원들로부터 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게 된다면, 이를 재원의 일부로 하여 사회적 기업에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휴먼뱅크 및 타임뱅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기업의 인력 수요와 공급 간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헤드헌터를 고용하여 잠자는 인력 풀을 깨우고, 잡헌터를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⁰⁰⁾ 둘째, 모집된 인력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은 현장에서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고, 현장의 눈높이로 자세를 낮추지 못하는 컨설턴트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모집된 인력들의 관리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신규인력 모집에만 치중하여 이미 확보된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력의 이탈 현상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명목상으로만의 회원 수가 증가함으로써, 휴먼뱅크 및 타임뱅크는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만 그치게 되고 말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휴먼뱅크와 타임뱅크의 접목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례로, 휴먼뱅크에 등록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공부방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가 학습교재를 제공하는 기업과 제

99) 수수료는 금융자문사와 배분하게 된다.

100) 착한기업 지원네트워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력 파견업 및 직업소개소 운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를 맺음으로써 이들로부터 온라인으로 학습교재를 제공받고, 이를 휴먼뱅크를 통해 연결된 청년들이 공부방에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일반 학원비의 십분의 일 수준으로 학년별·과목별 교육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휴먼뱅크는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대학생 및 대학 졸업 청년 실업자를 찾아주고, 인성교육과 기타 교육 및 멘토링을 해줄 봉사자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타임뱅크를 이용하여 이들의 봉사를 관리해 주고, 공부방의 학사관리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¹⁰¹⁾

이 외에도 휴먼뱅크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착한 전문가들을 사회적 기업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다양한 업종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적재적소에 필요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자 및 은퇴자들의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타임뱅크의 활용은 휴먼뱅크 참여도에 있어 획기적인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국민적 태안기름유출 제거봉사현장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감인들을 휴먼뱅크 및 타임뱅크의 성공적인 활용을 통해 일상의 사회적 기업 봉사현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최근,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 뱅크’의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대상의 단기 무담보 대출을 뜻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

101) 이 사업은 현재 한 금융자문사가 이미 교회 학습관 협회와 시행 예정 중인 사업으로, 단기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금융자문사는 공부방 학생들에게도 회원증과 체크카드를 겸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공부방의 학사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윤창출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지원기능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저소득층 대상의 '대출'에 국한된 개념인 반면,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저소득층 소득창출능력을 지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대출·저축수단·자금이체·보험 등)의 개념이다.¹⁰²⁾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저소득층의 개인 및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마이크로파이낸스(주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국내의 주요 기관으로는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있다. 신나는 조합은 2000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그라민 은행의 한국 지부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빈곤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디트 역시 그 일환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에 정식 출범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으로, 2008년 9월 말 현재 누적 대출금액이 130억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경영·기술 자문, 판로 개척 등에 있어서 각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¹⁰³⁾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 하나은행이 설립하여 올해 9월 출범한 '하나희망재단' 또한 사회적 기업에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예로 '조이비전'을 들 수 있다. 조이비전은 국내 최초의 프랜차이즈형 사회적 기업으로, 빈곤층의 미용실 창업과 경영을 지원한다. 초기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여기에는 '신나는 조합'과 경기도 수원시의 우만자활훈련기관이 6:4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또한 국민은행이 '신나는 조합'을 통해 조이비전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함으로써, 향후 가맹점 확대 시 자금 마련이 용이해졌다. 조이비전은 현재 3개

102) 오규택·박창균, 『Microfinance와 자본시장』,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103) <http://www.bss.or.kr> 참조.

인 가맹점의 수를 3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빈곤계층의 성공적인 자활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 발생 시 7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¹⁰⁴⁾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단순히 자금 대출과 상환의 구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산출물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을 위해 효과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은행의 사례에 서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 영리기업 이상의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의 경영 전문성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 및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실효성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 기관의 부실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성장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영 컨설팅은 설립 이전 시점의 사업 타당성 분석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전략·마케팅·인사·재무 등 경영 전 부문에 대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휴먼뱅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사전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야 지원이 성공할 수 있다. 즉, 발굴된 우수한 사업계획을 사회적 자원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함께일하는 재단과 사회연대은행이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대부사업은 모두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예비 사회적

104) <http://www.joyfulunion.or.kr> 및 『머니투데이』, 2006. 12. 17 참조.

기업을 만들어내는 장치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민간에서 조달된 기부금의 경우도 지정기탁사업 형태로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재원을 확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발견해 낼 수 있는 평가시스템과 재정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¹⁰⁵⁾

이 외에,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지원할 사회적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공동체 대출 지원 자격은 ‘최저 생계비 120% 이내, 기초 수급자가 1/3 이상 참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용자 추천을 받은 자활 공동체’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신나는 조합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금일 경우 1/3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민간 기금일 경우 3,000만원 미만 재산 확인 요’라는 의무사항이 대출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가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즉 ‘자활’이 아니라 ‘나눔’에 초점을 맞춘 착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지원받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의 사회적 기업도 대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변경 및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 기관 자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부분의 자금을 기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대출 관련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자금 공급 없이는 사업의 장기적 수행이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 기관은 자생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형 개발 및 자금 공급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¹⁰⁶⁾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각국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

105) 이종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에서 발췌.

106) 오규택·박창균, 『Microfinance와 자본시장』,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참조.

한 형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들을 살펴보면, 그라민 은행과 ACCION은 빈곤층 소액대출의 손실 위험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높게 설정하고 기관 운영경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방식을 취했고, 프랑스 아디는 빈곤층의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낮게 제한하고 기관 운영경비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¹⁰⁷⁾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에 그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자율을 낮게 설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 및 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시장과의 연계, 사회적 기업 투자 벤처캐피탈 조성,¹⁰⁸⁾ KAMCO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생한 잉여금 활용¹⁰⁹⁾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금융기관 및 각종 지원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¹¹⁰⁾

3.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 또

-
- 107) 노대명,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 만들어야』, 『나라경제』, 2007년 1월호, p.46 참조.
- 108) 현재 사회적 기업이 재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인증 이전의 자금 지원인데, 이 단계에서는 상환을 조건으로 하기보다는 엔젤투자적인 자금이다. 투자 성격의 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이 평가시스템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삼각 구도(triple bottom line)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안목으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의 경험과 NGO의 비전을 통합시킨 사회적 기업의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종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에서 발췌.
- 109) 이종수, 『한국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을 위한 제언』,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 · 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 110) 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금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로 사회적 기업 아이템이 미진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 벤처공모대회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사회적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사전 개입 차원뿐만 아니라 재원을 모집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종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에서 발췌.

한 필수적이다.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여 이윤 창출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그 경영과정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 경영 지식과 능력,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창의성 등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에게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쇼카 프로그램과 SSE(사회적 기업가 학교)이다. 아쇼카는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아쇼카의 창립자 빌 드레이튼은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회적 기업가·아이디어·환경을 지목하고,¹¹¹⁾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쇼카에 적용했다. 우선 전 세계 곳곳에서 잠재력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찾아내 펠로(fellow)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3년간의 금전적 지원(연간 5만달러)과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했다.¹¹²⁾ 그리고 이 펠로들을 서로 연결시켜 그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혁신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펠로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¹¹³⁾ 이러한 아쇼카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가들은 “브라질 농촌 경제를 살리거나 아프리카 질병퇴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수많은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 가운데 93%가 사업화에 성공”¹¹⁴⁾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다.

한편, SSE(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사회적 기업가 학교)¹¹⁵⁾는

111) *The Stanford Daily*, 8 February 2005 참조.

112) 지난 2006년까지 아쇼카는 전 세계 68개 국가 1,820명의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6,500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데이비드본스타인, 『달라지는 세계』, 박금자 외 역, 지식공작소, 2008. 6, p.24 참조.

113) <http://www.ashoka.org> 및 유병선, 『찾아낼 뿐, 가르치진 않는다. ‘아쇼카(Ashoka)’』, 『사회연대은행 웹진』, 2008년 3·4월호 참조.

114) 『경향신문』, 2007. 10. 8.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1997년 사회사업가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소신에 따라’¹¹⁶⁾ 설립한 것이다. 주 1회, 1년 단위 과정으로 진행되는 SSE 프로그램은 action learning이라는 교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action learning은 ‘학생들이 소규모의 그룹을 이루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최근에 성취한 성과와 문제점을 밀도 있게 토론하는 방식’¹¹⁷⁾이다. 이는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되짚어보게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새롭게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준다. SSE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프랜차이즈형 기관이라는 점이다. SSE는 처음부터 영국의 각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두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SSE 교육프로그램을 영국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서 활발히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SSE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결실을 이루어냈다. “지난 10년간 졸업생의 85%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 평균 3개의 일자리와 7개의 자원봉사자 자리를 늘렸다. 기존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했던 졸업생의 경우 SSE 이전에 비해 거래액이 평균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¹¹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 벤처대회이다. 그 예로 한국의 5개 경영대학(원)¹¹⁹⁾과 ARK투자자문이

115) 유병선, 『사회적 기업가 양성의 프랜차이즈화—영국의 ‘사회적 기업가 학교’(SSE)』, 『사회연대은행 웹진 2008년 7·8월호』, 2008, 문보경, 『한국의 사회적 대학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 SEBA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정책 대안: 세미나 자료집』, 고진화 의원실, 2006 참조.

116) 유병선, 『사회적 기업가 양성의 프랜차이즈화—영국의 ‘사회적 기업가 학교’(SSE)』, 『사회연대은행 웹진』, 2008년 7·8월호.

117) 문보경, 『한국의 사회적 대학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 SEBA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정책 대안: 세미나 자료집』, 고진화 의원실, 2006.

118) 유병선, 『사회적 기업가 양성의 프랜차이즈화—영국의 ‘사회적 기업가 학교’(SSE)』, 『사회연대은행 웹진』, 2008년 7·8월호, 2008.

119)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으며, 수상팀에게는 ‘글로벌소셜벤처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G SVC)’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한국소셜벤처대회(Social Venture Competition Korea: SVCK)’, G마켓과 실업극복국민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동부가 후원한 ‘Work Together 공모전’, 노동부에서 주최하고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08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대회’, 착한기업 지원네트워크가 주관하고 KDI가 협력하는 ‘착한기업 벤처공모대회’ 등이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진행되었다. 이외에,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교육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주관하고 SK가 후원하며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운영하는 전국 18개 기관¹²⁰⁾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노력들은 아직까지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먼저, 국내의 사회적 기업 교육프로그램도 이제는 그 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및 MBA에 사회적 기업 관련 과목 및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사회적 기업 교육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가 및 관련 종사자들로 그 대상이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자본주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특정 사회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고 접근 용이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유능한 사회적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택하지 않게(또는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려는 시도도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는 사회적 기업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

120) 2008년 8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로 통합과정 10개, 특화과정 8개 등 총 18개 교육기관이 선정되었다. 통합과정으로 선정된 기관은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성공회대, 숭실대, 전남대, 전주대, 대구기독교청년회YMCA, 사회적기업연구원, 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 강원도광역자활센터, 제주산업정보대학이다. 특화과정으로는 한겨레경영연구소와 카이스트 경영대학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가 MBA과정, 상지대 협동사회연구원이 협동조합 과정, 이장이 지역살림 과정, 행복나눔재단이 외식경영과정으로 선정되었으며, 장애인 교육기관 대표단체로 대안일터 큰 날개, 청년 교육기관 대표단체로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협센터, 문화 교육기관 대표단체로 노리단이 선정되었다.

하는 학생 수가 2006년에는 400여 명에 달해, MBA 프로그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¹²¹⁾고 한다. 물론 미국과 영국에서 MBA에 사회적 기업 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재단에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선별 및 투자 결정을 수행하고 사후 관리를 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훈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벤처동아리와 사회적 기업 벤처대회에 응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 과목이 일반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길 원하는 자들에 대한 장학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이 발달된 외국에서는 다양한 장학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등의 MBA에서 사회적 기업에 취직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앞서 언급한 아쇼카와 같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차원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한다.¹²²⁾ 사회적 기업가 장학제도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회적 기업가들이 금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들의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생계의 문제 때문에 선불리 사회적 기업가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것이다.

셋째, 이제 막 시작된 사회적 기업 벤처대회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대회를 개최하고 관심이 시들해지면 유야무야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대회 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벤처대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아이템을 실제로 사회적 기업화할 수 있도록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며, 벤

121) 『고대신문』, 2007. 3. 18.

122) 『고대신문』, 2007. 3. 18.

처대회 참가자들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아이디어 발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타의 기업, 특히 일반 영리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니치 마켓(Niche Market)을 비롯한 블루 오션 시장을 공략하거나 혁신적인 운영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혼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토론이 모아질 때, 이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가 아이디어 발굴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아쇼카(Ashoka)의 경우도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changemakers.net)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평가 및 네티즌 투표를 통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그 결과 2005년에 시작된 이 사이트에는 2006년 말 현재 100여 국가로부터 1,400여 건의 혁신 아이디어가 올라오는 등, 성공적인 아이디어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¹²³⁾

이 외에도 아이디어 발굴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미국에 RNSI (Rubicon National Social Innovations)라는 사회적 기업 연구소가 있다. RNSI는 사회적 환원을 극대화하면서도 재무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국 규모의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1~2년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새로운 사회적 벤처를 설립하거나 현재 존재하고

123) <http://www.ashoka.org> 및 유병진, 『찾아낼 뿐, 가르치지 않는다. ‘아쇼카(Ashoka)’』, 『사회연대은행 웹진』, 2008년 3·4월호 참조.

있는 벤처의 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풍부한 지식과 경험, 인적·금전적 자본, 그리고 자본 제공자·사회적 기업가·비영리 재단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루비콘 조경회사(Rubicon Landscape Services) 및 루비콘 베이커리(Rubicon Bakery)와 같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냈다.¹²⁴⁾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 단체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절의 '3. 사회적 기업가 양성' 파트에서 언급했던 '사회적 기업 벤처대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방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대중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아이디어를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하에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모형으로 개발해 낸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발히 설립되고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사회적 기업의 협력체제 구축 지원

많은 수의 사회적 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영업활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매입 및 제조 단가가 높아진다거나,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고객들에 대한 자사 및 자사 상품·제품의 홍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 기업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은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구매 및 공동 판매, 공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으로 마케팅을 수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이 네트워크는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는 위코노미(WEconomy)에서 말하는 공동체 기반의 '집단 지성'을

124) <http://www.rubiconprograms.org> 참조.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들은 네트워크 단위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의 상장까지 도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들이 스스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별 기업이 여러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 일일이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네트워크 관리활동을 기업 운영활동과 병행하는 것 역시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이나 단체가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

먼저, 오픈 네트워크 형식을 취함으로써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갖추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등의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확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 중 SHC(Servant Holding Company)가 있다. SHC는 역지주회사의 형태로 각 기업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과 통합기업의 중간적인 지배구조이다. 조합이 현금을 출자하거나 회원기업과의 서비스 거래활동에 따라 확보된 초기자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이 주식회사는 조합형 회사가 전액 출자한 회사이므로 동일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은 조합원 전체의 소유로 일반적으로 매도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회원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배부하는 것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낸다. SHC 회원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SHC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자본의 이익을 분배받게 되어 조직의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상장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일정 부분도 기여도에 따라 배당, 재투자 등의 여러 방법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 SHC는 1차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는 회원기업들을 위한 수평 네트워크 모델에서 출발한다. 1차 완제품 업체들의 협력업체들을 다시 SHC로 연결하고 원청 SHC와 하청 SHC 간의 상생의 수직네트워크 모델이 상호 시너지를 가지며 수평네트워크 SHC 기반으로 융합되도록 한

다. 이와 같은 모델은 프랙탈 조직형태로 퍼져 나가 사업 생태계를 이루며 글로벌 SHC로 발전해 나간다. 기본 모델이 되는 SHC의 각 네트워크는 거버넌스(조직) 모델,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기술서비스 모델 등을 통합한 모델로 구축된다. SHC는 회사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어드(Share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파생 지식서비스 창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직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시도한 유사한 모델은 비자 인터내셔널(Visa International)이다. 비자인터내셔널은 역지주회사 형태로 가장 성공적인 지식서비스네트워크 회사로 성장하였다. SHC는 비자와는 달리 회원회사가 지주회사를 소유하는 특징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신뢰 기반이 제공됨으로써 영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다.¹²⁵⁾

이러한 SHC 구조가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입된다면, 사회적 기업들은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획득, 안정적인 투자 자금과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로 또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별로 사회적 기업의 SHC가 구성되고, 이러한 SHC가 서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적 기업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가 공유하는 휴먼뱅크와 타임뱅크를 구축할 수 있고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의 협력체제는 사회적 기업들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단체 등에 의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은,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 및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125) 박광호·김대영·김윤희, 『SHC(Servant Holding Company) 기업지배구조 기반의 지식서비스 혁신 신산업모델 개발』, 2008 추계 경영정보학회 발표자료, 참조

제2절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도 노동부와 사회투자지원재단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 기업 창업가들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 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에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현 지원은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개별 기업에, 특히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에 의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의 기업에 다소 편중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 가치와 역량과 지원의 조화¹²⁶⁾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더치 레오너드 교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 가치와 역량과 지원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반면,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육성하는 데에는 투자와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원영역이 과도하게 크고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지머니(easy money)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으로써, 정부지원이 끊기는 2, 3년 뒤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량을 키워내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당장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126) 박헌준,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 육성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에서 발췌.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 및 사회적 지원기관들은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지원’보다는 ‘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역량에의 투자를 통해 투자유치가 가능한 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조직해 나갈 능력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키워낼 수 있다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경영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은 실질적인 투자자들의 몫이다. 제프 스콜 같은 실리콘 밸리의 젊은 거부들이 설립한 재단들은 투자 가능성이 없는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에 혹은 준비되지 않은 사회적 창업가에게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지원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결국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지녀야 할 원칙과 방향은 사회적 기업 하나 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장이라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의 실행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일, 그리고 미국의 우수 경영대학과 경영대학원들이 모두 사회적 기업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영대학과 경영전문대학원들도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기업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일 등을 지원하는 데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을 키움과 아울러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함양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역량과 지원이 있을 경우에도 가치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회적 기업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필요에 반응하였을 때 정감인이 받는 감동과 보람의 줄을 따라 활성화되는 만큼, 감동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홍보와 과시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정부가 강요하거나 주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기업인증제의 개선

현재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사관리·회계·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융자해 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해 보호된 시장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부여하며, 사회적 기업이 아카데미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08년 10월 말 현재까지 인증된 154개의 사회적 기업들은 여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우리 사회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정착시킴으로써 더욱 큰 효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인증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 요건으로는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 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 등이 있다. 이 중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나뉘는데, 이 요건으로는 우리가 지금껏 논의해 온 ‘창출한 이윤을 통해 남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 기준이 불명확하다. 명목상으로는 기타형으로 분류하여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나,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¹²⁷⁾과 관련해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그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기타형으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들도 대부분 자립·자활의 형태이며,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으로 별도의 이윤 나눔형 기준을 정립하거나, 기타형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중 하나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창출한 이윤의 나눔에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127)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의 사회적 사명을 기본으로 하여 i)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 정도, ii) 지역사회 기여(공헌)도, iii) 지속 가능성, iv)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직업훈련 등) 구비 여부로 하고, 조직 설립취지나 활동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인증 매뉴얼』, 2008, p.10.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게 된 뒤에는 사회적기업인증제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¹²⁸⁾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정부가 아닌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인증제도와 과도한 지원정책은 사회적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이윤창출의욕을 저하시켜 외부 지원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조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을 보면,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 기간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외부 보조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윤 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사회적 기업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¹²⁹⁾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및 그들을 돕는 민간단체와 잘 협력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며 인프라를 정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¹³⁰⁾

덧붙여,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사회 환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벌임으로써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영리기업들에도 현재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 산입의 한도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공동체자본주의와 창조적 자본주의’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정책은 때로 수천억원의 금전적 보상과 맞먹는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8)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회적기업인증제를 통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체나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129) 덧붙여, 현재의 인증제는 새로운 다른 형태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130) 사회적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에 포함된다.

3.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가. 사회적 기업 시범사업 운영

사회적 기업을 처음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벤처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부담은 어느 한 개인이나 민간이 선불리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대신 그 위험을 감수해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사회적 기업의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 또는 정부 주관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그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선별해 내고 구체화시킴으로써 사업 모델로 발전시킨 후, 이를 실제로 운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규모를 확대해 가는 동시에 소유주체를 차차 민간으로 이양해 가도록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자활 가능한 기업 모델을 개발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모델 개발이 이뤄졌으나 창업비 및 운영비 등의 부재로 기업화하지 못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¹³¹⁾ 또한 이들은 인큐베이팅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활동비 및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별 네트워크

131) 구체적인 사업의 예로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주)메자니에코원'이라는 블라인드조립 기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동시에 창출되는 영업이익을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크도 지원하고 있다.

한 개의 작은 시범사업의 성공은 사회적 기업의 급속한 확산 및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이러한 인큐베이팅 사업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예산은 창업지원사업 3억 5천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가 사업 5천만원이며,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가로 선발된 인원도 총 4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시범사업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봄으로써, 업무와 사회적 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용보증 및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것은 효율적 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사회적 기업의 큰 장점을 무색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들을 수동적인 자금 수혜자로 만드는 대신, 그들이 의욕을 갖고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원된 자금이 사용된 후 사라져버리는 비용이 아니라 선순환구조를 이뤄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하고 단발적인 자금 지원 대신, 민간과 협력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민간이 신용보증기금(KODIT)에 일정액을 출연하면¹³²⁾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총액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민간 사회적 기업 지원단

132) 이 기금은 필요시 정부가 일부를 출연할 수도 있다.

체가 1억원을 모아 직접 사회적 기업들에 대출해 주고자 하면 1억원까 지밖에 대출을 해주지 못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기업 보증에 대한 기본 자산으로 1억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최대 법정한도 20배, 즉 20억원까지 보증을 해줌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배까지의 보증은 힘들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0배, 즉 10억원 정도까지는 보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마포구청과 신용보증기금 간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협약’이 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마포구청으로부터 출연 받은 2억원을 통해 마포구청이 추천하는 중소기업들에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협약으로, 마포구청이 직접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12배 내외의 자금 지원효과를 냈다.¹³³⁾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이 “협약보증을 활성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1%로 고정시키는 등 우대조치”¹³⁴⁾를 취했다.

이처럼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민간의 자금을 대한 보증을 지원하되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보증협약에는 우대사항을 제공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금상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재원 확보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부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자는 몰리다보니, 각각의 대출규모는 평균 9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¹³⁵⁾ 이는 주지하다시피 새롭게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액수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민간 투자자는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공공부문은 보증을 제공하며, 자본금은 민간 기부자금 및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관 협력 마이크로파이낸스 자금조달체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¹³⁶⁾

133) 『한국경제』, 2007. 7. 31 참조.

134) 『머니투데이』, 2007. 7. 31.

135) 『한겨레』, 2006. 10. 17.

136) 오규택·박창균, 『Microfinance와 자본시장』,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

또한 정부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제도 마련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법적 위상이 모호하여 사업의 성격대로 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기관을 특수목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³⁷⁾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기관화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금융소외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리스크와 운영비와 조달금리를 커버하는 수준의 금리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내지 20%의 금리를 지불하고 빌려가는 것이 일반 시장에서 이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들도 자회사를 통하여 마이크로크레디트와 마이크로파이낸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리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여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와 경영 컨설턴트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¹³⁸⁾ 각종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137) 이종수, 『한국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을 위한 제언』,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138) 현재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더불어 잘사는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자본주의와 이의 핵심 주체인 나눔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공동체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에게 이기심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다. 시장경제이론의 창시자이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담 스미스도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사람은 본질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의식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심 또는 공평한 관전자(impartial spectator)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고, 반응하는 경우에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자본주의의 핵심 주체로 정감인과 사회적 기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보다는 창출한 수익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나눔형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주류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자립·자활 중심의 사회적 기업 역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

하지만, 스스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성격상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으며, 또한 일반자원봉사자의 접근이 용이치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통합의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RED의 사례와 같이 사전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는 착한 목적을 갖는 나눔형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응답을 시도하였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사례로부터, 사회적 기업이 착한 목적에 따른 사회적 인정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착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실패 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성공한 ‘뉴먼즈 오운’과, 월별 영업이익이 해당 이익 지출목적의 착한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사랑의 줄이기 서빙 고집’을 그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 착한 목적에 따른 사회적 인정을 통해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미 여러 대학에 사회적 기업 벤처 동아리들이 결성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 벤처 공모 대회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휴먼뱅크와 타임뱅크 및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 구축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밝히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는 나눔형 사회적 기업이 명시적으로 사회적 기업 유형으로 언급되도록 사회적기업인증제도를 개선하며, 사회적 기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각각의 방안들은 향후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사회적 기업가의 발굴과 양성에 관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사회적 기업은 정감

인의 마음을 가진 사회적 기업 경영자와 사회적 기업의 직원 및 이들을 돕고자 하는 착한 전문가와 봉사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칭한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내년 KDI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 제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사회적 기업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외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는 KDI와 콜럼비아대학의 국제 컨퍼런스는 외국의 모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제언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역량과 지원의 조화가 필요한데 현재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의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지원이 인증제도에 의해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목적의 기업에 다소 편중되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현 사회적 기업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정의된 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념 규정은 한 분야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오히려 예비 사회적 기업들의 벤처창업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사업이 사회투자지원재단 등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제공에 있어 민간과 파트너십을 이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예전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듯이 정부주도로 서두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활발히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그 역량을 기울여야 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과 아이디어와 환경이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경영대학과 대학원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아쇼카 재단과 같은 민간재단이 출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간재단이 휴먼뱅크를 구축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공헌기업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트린,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 윌버포스』, 송준인 역, 두란노, 2001.
- 고건, 『공동체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 정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
- 구학서 편저, 『이야기 세계사 2』, 청아출판사, 1997.
- 권영준·심상달·정세열,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 권영준, 『공동체자본주의와 관련된 개념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
- 김민제, 『서양 근대 혁명사 3부작, 제1부—영국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2003.
- 김혜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가』, 『노동리뷰』, 2007년 3월호.
- 노대명,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 만들어야』, 『나라경제』, 2007년 1월호.
- 데이비드본스타인, 『달라지는 세계』, 박금자 외 역, 지식공작소, 2008.
- 마이크 에이킨, 『영국의 사회적 기업』, 『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6월.
- 마틴 버널, 『블랙 아테나』, 오홍식 역, 소나무, 2006.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88.
- 무하마드 유누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정재곤 역, 세상사람들의 책, 2002.
- 문보경, 『한국의 사회적 대학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 SEBA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정책 대안: 세미나 자료집』, 고진화 의원실, 2006.
- 박광호·김대영·김윤형, 『SHC(Servant Holding Company) 기업지배구조 기반의 지식서비스 혁신 신산업모델 개발』, 2008.
- 박원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 프리 월』, 중앙북스, 2007.
- 박지향,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2007.

- 박찬임,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노동리뷰』, 2008년 7월호.
- 박헌준,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 육성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8,’ KDI, 2008.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인증 매뉴얼』, 2008.
-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현황 연구』,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2007.
- 오규택·박창균, 『Microfinance와 자본시장』,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 왕지아평, 『대국굴기』, 양성희 외 역, 크레듀 출판사, 2007.
- 윌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홍병룡 역, IVP, 2007.
- 유병선, 『찾아낼 뿐, 가르치진 않는다. ‘아쇼카(Ashoka)’』, 『사회연대은행 웹진』, 2008년 3·4월호.
- _____, 『사회적 기업가 양성의 프렌차이즈화—영국의 ‘사회적 기업가 학교’(SSE)』, 『사회연대은행 웹진』, 2008년 7·8월호.
- 이근식, 『재정·금융정책과 자유주의 사상』, 조세연구원, 1994.
- 이은애, 『특강 자료—사회적 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 입문교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2008. 1.
- 이종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2008, KDI, 2008.
- _____, 『한국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을 위한 제언』,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엄 2007,’ KDI·공동체자본주의 포럼, 2007.
- 자끄 드푸르니,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현실』, 『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6월호.
- 정선희, 『사회적 기업』, 다우, 2004.
- _____, 『한국의 사회적 기업』, 다우, 2005.
- 정세열, 『윌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2007.
- 조성기, 『유일한평전』, 작은씨앗, 2005.
- 조영복,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원, 2007.
- 조희연 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3.
- 퍼거슨, 『제국』, 김종원 역, 민음사, 2006.
- 피터슈피겔, 『가난없는 세상을 꿈꾸는 은행가』, 홍이정 역, 좋은책만들기, 2007.
- 『고대신문』, 2007. 3. 18.
- 『경향신문』, 2007. 10. 8.

- 『동아일보』, 2007. 1. 18.
『머니투데이』, 2007. 6. 5, 2006. 12. 17, 2007. 7. 31, 2007. 8. 31.
『조선일보』, 2007. 12. 31, 2008. 1. 1, 2008. 1. 7, 2008. 1. 10, 2008. 3. 10.
『주간한국』, 2007. 10. 24.
『한겨레』, 2006. 10. 17.
『한국경제』, 2007. 7. 31.
『한국일보』, 2006. 10. 14, 2007. 10. 14.
- Cubberley, E. P. "History of Education," Houghton Mifflin, 1920.
Greenspan, Alan, "Adam Smith Is as Relevant Today As He Was More Than Two Centuries Ago," Chairman' Remark, FRB, 2004.
Henry, J.,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Origins of Modern Science*, 3rd Edition, Palgrave Macmillan, 2008.
King, M. L., *Western Civilization: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2006.
Lean, Garth, *God's Politician*, Helmers & Howard, 1987.
Newsome, David, *The Parting of Friends*, John Murray, 1966.
Morgan, R. M., *The Critic of Exploitation: Adam Smith, An Insight into the Philosopher Economist who defined the Moral Foundation for the Free Market Economy*, Adam Smith Institute, 2006.
Perkins, Harold James,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1969.
Rajan, Raghuram G. and Luigi Zingales, *Saving the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Vincent, D., *Literacy and Popular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Weber, M.,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Dover Publ. Inc. 2003.
guardian, 6 August 2008.
The Stanford Daily, 8 February 2005.
Time, 11 December 2006.
Time, 31 July 2008.
Wikipedia, History of Democracy
Wikipedia, History of Journalism
- <http://www.ashoka.org>
<http://www.beautifulstore.org>
<http://www.bss.or.kr>
<http://www.jahwal.or.kr>

<http://www.joyfulunion.or.kr>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C%9D%BC%ED%95%9C>

<http://www.ksm.or.kr>

http://www.marshallcavendish.us/marshallcavendish-us/attachment/reference/catalog/social_studies/business/0761474307-2.pdf

<http://www.newmansown.com>

<http://www.sec21.or.kr>

<http://www.perscholas.org>

<http://www.rubiconprograms.org>

<http://www.woljoo.com>

<http://www.yuhan.co.kr>

